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3년 2월 26일(주일) 제1431호



사진은 지난 2022년 순장영성수련회.

‘영혼을 돌보는 순장!’

2023 순장영성수련회 3월 1일 오전 10시 양재 사랑홀 신임 순장 및 다락방장 481명 임명, 리더십 1,800여 명 참석

온누리교회 리더십이 한자리에 모인다. 2023 순장영성수련회 ‘영혼을 돌보는 순장’이 3월 1일(수) 오전 10시 양재온누리교회 사랑홀에서 막 오른다.

순장영성수련회는 순장 이상 리더십들을 격려하고, 비전을 공유하며, 섬김과 헌신을 독려하는 축제다. 국내 10개 캠퍼스에서 온누리교회 리더십(순장, 총무, 다락방장, 장로) 1,8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신임 순장 및 다

락방장 481명이 임명장을 받는다.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에서는 순장영성수련회 실황을 중계한다.

2023 순장영성수련회 ‘영혼을 돌보는 순장’은 당회서기 홍성호 장로 대표기도, 이재훈 담임목사 메시지, 패널토의, 점심식사 및 이벤트, ‘순원 돌봄의 실제’ 강의, 신임 순장 및 다락방장 임명식, 온누리 순장 어워드, 기도회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이재훈 담임목사가 ‘영혼을

돌보는 순장’을 주제로 메시지를 전하고, 강의 ‘순원 돌봄의 실제’에서는 이기훈, 이기원, 노치형 목사가 환우 돌봄, 어려운 성도 돌봄, 장례 가정 돌봄 등을 주제로 강의한다. 주영재 순장은 돌봄 모범 사례 발표를 한다. 온누리 순장 어워드에서는 최장기 순장상(가장 오랫동안 쉬지 않고 섬긴 순장), 최다산 순장상(분순을 가장 많이 한 순), 기러기 순장상(가장 먼 거리를 이동해 순을 섬긴 순장), 감동 순장상(공동체에 모범이 되며 많은 성도에게 감동을 준 순장) 시상한다.

순장영성수련회 당일에는 3인 이상 동승 차

량만 교회 주차장(지하) 및 일동제약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그 밖의 차량은 양재환승 주차장(4시간 무료 주차권 지급)에 주차하면 된다. 양재역과 교회를 오가는 셔틀버스를 오전 8시 45분부터 10시 30분, 오후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운행한다. 어린 자녀들을 위한 탁아 서비스도 제공한다. 자모실(36개월 미만, 부모 동반), 사이닝홀(36개월~초등 3학년)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운영한다.

문의: 02-570-7356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튀르키예-시리아 대지진 긴급구호팀 본대 파견

튀르키예 이스켄데룬에서 텐트 설치 및 구호품 전달

온누리교회가 튀르키예-시리아 대지진 긴급구호팀 본대를 파견했다. NGO 더멋진세상 대표 김광동 장로와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 등 10여 명으로 구성됐다.

튀르키예-시리아 대지진 긴급구호팀 본대는 지난 2월 23일(목) 출국했다. 튀르키예 하타이주 이스켄데룬에서 구호 활동을 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월 16일(목) 출국했던 튀르키예-시리아 대지진 긴급구호 선발대는 22일(수) 정탐을 마치고 안전하게 귀국했다<관련 기사 6면>.

사)더멋진세상 우리은행 1005-902-984765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창 1:6)

2월 25일~3월 3일 사순절 창조질서 캠페인 ‘대기환경 개선’

사순절 창조질서 캠페인 ‘보기시에 좋았더라’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2월 25일(토)부터 3월 3일(금)까지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창 1:6)를 묵상하고, 대기 환경을 개선하는 작은 실천을 한다.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가 함께하는 교회 실천은 ‘대중교통 이용하기’, ‘쓰레기 분리수거 철저히 하기’다. 성도 개인 실천은 ‘로컬푸드 소비하기’, ‘실내 공기정화 식물 키우기’, ‘걷거나 자전거 타기’다.

지난 2월 18일~24일까지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창 1:3)를 묵상하고, 에너지를 절약을 실천했다. ‘미사용 공간의 전기 소등하기’, ‘컴퓨터에 불필요한 데이터 삭제하기’ 등을 했다. 채리 앱을 활용해서 사순절 창조질서 캠페인 ‘보기기에 좋았더라’에 참여하면 더욱 알차다. 채리 앱에서 매일 ‘교회 실천’과 ‘개인 실천’을 확인하고 인증샷과 소감을 남기면 ‘오늘의 미션’을 완료하게 된다. 채리 앱은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에서 설치하고, ‘MY단체’에 온누리교회를 등록한 다음 ‘캠페인’란에서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캠페인 ‘보기기에 좋았더라’를 선택하면 된다.

/ 김영선 기자 <채리 앱 QR코드>



차세대 교사 부흥집회 ‘돌봄’

3월 8일 양재 사랑홀, 15일 서빙고 본당

차세대 교사 부흥집회 ‘돌봄’이 3년 만에 막 오른다. 3월 8일(수) 양재온누리교회 사랑홀, 3월 15일(수)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오후 7시 30분에 진행된다. 3월 8일 강부호 목사, 3월 15일 이재훈 담임목사가 설교한다. 차세대 교사와 부모, 다음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노희태 목사(차세대사역본부장)는 “다음세대를 돌보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교사부흥집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문의: 02-3215-3523

/ 홍하영 기자 hh0@onnuri.org

Q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길
진리
생명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왜 다툼과 분열의 늪에서 벗어 나지 못하는지 그 이유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있습니다. 감리교 선교사 스탠리 존스의 말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믿는지 말하라. 그러면 불화가 생길 것이다. 당신이 ‘누구를’ 믿는지 말하라. 그러면 하나 됨을 경험할 것이다.”

무엇을 믿는지를 말하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신앙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에 게서 벗어나 부수적인 문제에 맞춰질 때 불화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무엇을 믿는가를 논하는 것조차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다른 길을 갑니다. 서로 다른 해석에 근거해서 다른 제도와 문화를 이룹니다. 결국 하나 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릅니다.

어느 지역사회에서 두 블록 정도 떨어진 교회들이 서로 합병해서 섬기기로 결의했습니다. 합병에 대한 결의 이후 구체적인 협의를 했는데, 결론은 합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주기도문의 번역 문구를 서로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 교회는 주기도문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는 번역을 사용했는데, 다른 한 교회는 헬라어로 ‘죄’라는 단어를 ‘빚’이라는 단어와 같이 쓰기에 “우리 빚을 사하여 주옵시고”라는 번역을 고집했습니다. 주기도문의 번역 문구에 대한 시각 차이로 합병이 깨졌습니다. 지역 신문에서 실패한 두 교회의 합병 계획을 다루면서 이렇게 기사를 썼습니다.

“한 교회는 그들의 죄로 돌아갔고, 한 교회는 그들의 빚으로 돌아갔다.”

이단적인 교리가 아닌데도 서로 해석의 차이를 용납하지 못함으로 다툼과 분열로 얼룩지는 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 역사가 흐를수록 대부분 이런 합정과 늪에 빠집니다. 늪에 빠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 로마 교회는 적어도 25년 이상 흐른 시점이었습니다. 한 교회의 역사가 25년이 흘렀다면 이런 늪에 빠지기엔 충분히 긴 시간입니다.

지난 주 두 가지 분열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하나는 음식의 문제요, 다른 하나는 절기의 문제였습니다. 두 가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별개로 볼 수 있는 주변적인 문제입니다.

지난주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우상 숭배와 관련될 수 있는 고기를 먹을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여기고, 그 고기를 먹지 못하거나 먹지 않는 성도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고 판단하는 문제였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주로 유대 그리스도인이었을 가능성이 큼니다. 오랫동안 구약을 근거로 살았던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자유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습관대로 신앙생활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먹지 않게 되어 있는 음식을 먹는 사람들을 판단한 것입니다. 베드로조차 오랫동안 이어온 익숙한 습관에서 벗어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 구약의 절기를 지키며 살아온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여전히 어떤 날이 돌아오면 절기의 습관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 또한 ‘믿음이 연약한 자’로 평가받았습니다.

바울을 통해 가르쳐 주신 복음의 진리는 모든 음식과 절기에 대해 자유를 허락합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의 의식법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그분을 미리 보여주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로 말미암아 더는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여전히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오랜 습관이 배어있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어떠한 태도를 보여야 하는지를 교훈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 스스로 부정하게 여기는 것 자체가 부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유하라”고 권면했습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복음 안에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스스로 제한할 수도 있어야 한다고 권면했습니다. 자유보다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판단하는 것보다 연약함을 배려해서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랑이 더 중요한 신앙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을 판단하므로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게 하고 장애물을 놓는 게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배려함으로 자기 자신을 제한하고, 그들의 신앙이 세워줄 수 있는 디딤돌 같은 신앙이 되어야 한다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누군가에게 걸림돌입니까? 장애물입니까? 누군가의 신앙이 주께 더 나가게 하는 디딤돌입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판단하지 말고, 그들을 배려하고, 자유를 스스로 제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주어진 자유를 완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첫째, 연약한 자들이 금지된 일을 행하는 잘못된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자유를 완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속도로에 제한속도가 있습니다. 그 속도를 넘어서지 않지만 충분한 속도로 운전하며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있고, 그 속도에 훨씬 못 미치는 속도로 운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는데

그것을 먹지 못하거나 먹지 않는 것은 금지된 것을 넘어서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것을 못 하는 것뿐입니다. 그것을 ‘연약함’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는 것은 잘못이지만, 할 수 있는데 도달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연약함이지 판단보다는 사랑으로 품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을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 주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역사 속 논쟁과 분쟁 가운데 언제나 지침이 됐던 문장이 있습니다. 멜테니우스라는 분이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질적인 것들에는 일치할, 비본질적인 것들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서 사랑을.”

우리는 비본질적인 것에 자유를 허용하지 않고 그것을 일치시키려 하다가 다툼과 분열에 빠져 버리고 맙니다.

판단할 자유는 예수님에게만

둘째,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다른 종을 판단할 자유가 우리에게 없고, 주인 되신 예수님에게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서 살리신 이들을 종의 신분인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들을 근심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권한이 아닙니다.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다. 우리는 그들을 믿음이 연약한 자로 보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는 다른 판단이 있을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의 속 신앙을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받아 주셨기에

셋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받아 주셨기에 우리도 서로 받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받아 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받으십시오”(7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은혜로 나를 받아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어떠한 죄와 허물도 완전히 사해 주셨음을 강하고 굳게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른 이들을 대하는 게 다릅니다. 어떤 믿음이 진짜 강한 믿음입니까? 누군가를 판단하는 능력은 강한 믿음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받아 주고 세워주는 게 강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받아 주셨듯이, 예수님이 그 사람을 바라보시는 것처럼 대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습니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걸림돌이라 아니라 디딤돌 되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다. 나를 대하듯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시는 것처럼 바라본다면 그 또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디딤돌이 되는 신앙이 됩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는 마땅한 것이고, 다른 사람이 은혜받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는 것은 죄의 증상입니다.

수십 년 전 일입니다. 제가 대학 시절 기독교 동아리 수련회를 할 때였습니다. 어느 자매가 집회가 끝났는데 매우 심각하고 무엇인가 불편한 얼굴이었습니다. 리더십들은 그 친구가 깊이 회개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후에 고백하기를 그 수련회에 자신이 너무 싫어하는 친구가 왔는데, 그 친구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용납이 안 되었습니다. 그 좋으신 예수님을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친구가 만났다는 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태도라는 것을 알기에 괴로웠던 것입니다. 그 자매를 정죄하기 어려운 것은 우리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수처럼 여기는 누군가를 예수님이 받아 주신다면 말리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 친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받아 주시는 대상을 적어 드리고 싶습니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 받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화평을 이루고 서로 세워주는 일에 힘쓰시다”(17~19절).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 간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 나라 대사관입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

교회가 다툼과 분열의 늪에 빠지는 가장 명확한 이유는 예수님에게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문제나 절기를 어떻게 지키는 주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본질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바로 믿고 있는지는 어떤 규칙, 문화, 관습을 얼마나 지키고 있는지가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고 있는가입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기쁨과 평강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4장 17절과 병행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기뻐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합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롬 5:1~3).

1절에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고, 그 이후 화평을 누리고, 환난 가운데서 기뻐하는 기쁨이 나옵니다. 신약에서 화평, 평강, 평화는 전부 같은 단어로 사용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이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누군가와 화평을 누리게 되고, 그 결과가 기쁨입니다. 의의 열매가 화평이요, 화평의 절정이 기쁨입니다. 그래서 의롭다 함을 받은 자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릴 뿐만 아니라 주변 관계에서도 화평을 누립니다.

“그리스도는 오셔서 먼 데 있는 여러분에게 화평을 전하셨을 뿐 아니라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에게도 화평을 전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모두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엡 2:17~18).

‘먼 데 있는 사람들’,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은 모든 우리 영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을 두 가지 종류로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가까운 사람이 있고, 먼 사람이 있습니다. 먼 데 있는 사람이나 가까이 있는 사람 모두 한 성령 가운데서 화평 가운데로 나아가게 된다는 말씀은 <이사야> 57장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먼 데 있는 사람과 가까운 데 있는 사람에게 화평을 전한 것은 <이사야> 57장 19절 말씀이 성취된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가까운 사람과 먼 사람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57장 20절 이후를 보면 정반대로 악인을 설명합니다. 의인은 화평을 누리고 더 나아가 기쁨을 누립니다. 그러나 악인은 평화(평강)가 없습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와 같아서 잠잠할 줄 모르고 진창과 진흙을 토해낼 뿐이다. 악인들에게는 평화(평강)가 없다”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사 57:20~21).

악인은 평화(평강)가 없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평화(평강)가 있습니다. 의의 길로 가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 평화(평강)이 흩어지지 않습니다. 그 결과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기쁨은 평화(평강)의 절정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것은 평화(평강)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기쁨이 무엇입니까? 의롭게 된 자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평화(평강)를 누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진정한 기쁨이 찾아옵니다.

기쁨의 완성 예수님, 다른 사람, 나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

다”(롬 14:18).“우리 강한 사람들은 마땅히 연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감싸 주고 자기가 기뻐하는 대로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각 사람은 이웃을 기쁘게 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록되기를 ‘주를 욕하는 사람들의 그 욕이 내게 미쳤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롬 15:1~3).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다음 이웃을 기쁘게 합니다. 그렇다면 자신에게는 기쁨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조이선교회’가 기쁨에 대한 명확한 해설을 알려줍니다. 영어로 조이(Joy)를 해설하면 ‘Jesus First, Other Second, You Third’입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다른 사람이고, 나를 가장 마지막에 둘 때 기쁨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기쁘게 할 때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디딤돌이 되는 신앙은 언제나 기쁨이 충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연약함을 기다려 주시고 인내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위로하고 격려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모퉁이돌이 되심으로 우리의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에게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같은 뜻을 품게 하시고 한마음과 한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롬 15:5-6).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걸림돌이라 아니라 디딤돌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류현모 교수의 기독교 세계관

‘과학주의’라는 이념



류현모 교수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탈기독교 시대를 이끄는 과학주의는 ‘유물론’, ‘물질주의’, ‘자연주의’, ‘과학제일주의’라고도 하며 과학만이 진리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는 이념이다. 이것은 계몽주의시대 이후

인간의 이성에 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룩된 과학적 발견들과 이를 현실에 적용한 기술의 발전에 의한 것이다.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많은 한계를 극복하기 시작한 과학기술자들의 자신감에서 나왔을 수 있다. 과학주의 주장은 물질을 사용해서 과학적 방법으로 증명될 수 없는 것은 과학적 지식이 아니라는 방법론적 자연주의에 근거한다. 이러한 주장이 자연과학에서는 통용될 수 있으나 신학, 철학, 윤리학이나 인문사회학 같은 비물질적인 것을 다루는 분야에는 적용될 수 없다. “신은 존재하는가? 우주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옳고 그름의 절대적 기준은 있는가?”와 같은 형이상학적 질문에 대해서도 과학적 방법론을 사용하라는 철학적 자연주의는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신무신론자들은 이 주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과학적 지식은 물질로써 증명되

기 때문에 객관적 사실로써 대중 앞에서 주장될 수 있다. 그러나 신 존재 여부처럼 물질로써 증명될 수 없는 종교적 신념은 주관적 믿음이기 때문에 공적인 장소에서 주장될 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자기 방 안이나 교회 안에서만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공공장소에서의 종교적 행위나 전도를 비난한다.

이러한 과학주의적 생각은 공교육을 통해 모든 국민에게 전파되고 있는데 그 선봉을 맡는 게 다윈의 진화론이다. 학교에서 배우는 다윈의 진화론을 진리로 받아들이게 되

을 거부하는 학생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학생 중 일부는 자신의 종교나 철학적 신념으로 인해 과학적 결론(진화론)을 진리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교사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 ‘네가 이 과학적 진리(진화론)의 증거를 개인적으로는 거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이 분야의 과학자들 사이에서 의심의 여지가 없는 과학적 지식이다. 즉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지식의 일부이기 때문에 너는 이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무신론자 과학자들은 거대한 진화론 카르텔을 형성하고, 진화론에 반대하는 학자들을 조직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면 성경의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을 신뢰하기 힘들게 된다. 성경의 가장 앞부분 특히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성경의 나머지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일은 불가능할 것이다. 오늘날 우리 자녀들 신앙의 근본을 공격하는 가장 치명적인 이념이 과학주의이다.

진화론이 이념이라는 증거는 이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진화론을 주장하는 방식에서 잘 드러난다. 캘리포니아주 공립학교의 과학교육 과정 지침서로 출판된 <과학의 기본>이라는 책이 있다. 그 책에서는 생물학에서 종을 넘어서는 대진화를 받아들이는 것

이 말이 중요한 이유는 과학교사들이 창조론보다 진화론이 더 설득력 있기에 지지하는 것이 아니다. 실재에 대한 지식은 오직 과학에서만 나오고, 과학에서 유래한 주장만이 공적으로 보증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종교나 철학의 주장은 과학적 증거가 불가능하기에 주장할 만한 것이 못 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하버드대학의 유전학 교수 리처드 르윈틴의 발언은 더 노골적이다.

“상식에 반하는 과학적 주장(진화론)임에도 불구하고 과학(진화론)의 편을 드는 이유는 우리가 사전에 유물론에 헌신했기 때문

이다. 우리는 신의 발이 문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할 수 없기에 유물론은 절대적이다.”

그의 생각은 과거 로마 교황청이 갈릴레이의 과학 활동을 종교의 이름으로 꺾박한 일화에 대한 피해의식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동일한 피해의식은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스티븐 와인버그의 말에도 나타난다.

“세계는 오랜 종교의 악몽에서 깨어날 필요가 있다. 종교의 장악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우리 과학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지 해야 하고 이는 문명에 대한 최대의 기여일 수도 있다.”

참과 거짓을 논리적인 방법론을 적용하지 않고 자기 패거리의 주장이 무조건 옳다고 하는 것이 거짓된 이념의 공통적인 특성이 다. 미국 국립과학원 지도부의 90% 이상이 무신론자라고 한다. 국제적으로 최고 수준의 학술지 편집위원 대부분 무신론자이다. 그들은 거대한 진화론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으며, 진화론에 반대하는 학자들을 조직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그들은 학문의 후속 세대에게도 그 위력을 행사하며 그 앞에 무릎 꿇을 것을 명령하고 있다.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의 산헤드린 공회에서 협박당했을 때 한 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행 4:19b~20).

추천 도서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케이프타운 서약>
로잔운동 제1 MP | 11,000원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복음주의 헌장’
이 책의 부제다. 책 <케이프타운 서약>은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열린 제3차 로잔대회의 내용을 담은 문서다. 13cm*20cm의 크기, 261페이지로 일반 책과 비교해 조금 작다. 하지만 그 내용은 결코 가볍지 않다. 1974년부터 2010년까지 36년 동안 이어진 로잔 정신 즉,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자”는 세계 복음화를 위한 행동강령을 제시하고 있다.

로잔대회는 전 세계 모든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가르침을 증거하기 위해 복음주의 지도자들을 동원한 전 세계적인 운동이다. 인류 역사에서 지금까지 세 번 열렸는데 제1차 로잔대회는 1974년 7월 스위스 로잔에서, 제2차 로잔대회는 1989년 필리핀 마닐라, 제3차 로잔대회는 2010년 10월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막 올랐다. 제4차 대회는 2024년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다.

로잔 연약이 중요한 이유가 있다. 사회에 대한 기독교의 책임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창조주이시

오, 동시에 심판자이심을 믿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 사회 어느 곳에서나 정의와 화해를 구현하고 인간을 모든 종류의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키려는 하나님의 관심에 동참해야 한다... 이 사실을 우리는 등한시해 왔고, 때로 복음 전도와 사회 참여를 서로 상반된 것으로 여겼던 것을 뉘우친다.”

이 책은 한국 교회와 신자들에게 로잔 정신과 신학을 알리기 위해 편찬했다. 1부 ‘케이프타운 신앙고백’, 2부 ‘케이프타운 행동 요청’으로 구성되었다. 우리가 더 눈여겨볼 것은 2부 행동 요청이다. ‘우리가 섬기는 세상을 위하여: 케이프타운 행동 요청’인데 총 6가지 주제(다원주의적이며 세계화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진리를 증거하기, 분열되고 깨어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평화를 이루기, 타종교인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기, 세계 복음화를 위한 그리스도의 뜻을 분별하기, 그리스도의 교회가 겸손과 정직과 단순성을 회복하기, 선교의 하나됨을 위해 그리스

도의 몸 안에서 동역하기)에 대해 전 세계 교회가 직면한 도전과 미래를 향한 우선순위를 분별하는 기준을 제시한다. 6가지 주제에 따라 우리가 행할 바에 초점을 맞춘다.

포스트모던, 다원주의적 이데올로기가 대세인 이 시대에는 절대적인 진리를 허용하지 않는다. 절대적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유일한 절대적 진리로 주장하는 그들 앞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대처하고 행동해야 할까? 책 <케이프타운 서약>이 의미 있고 유용한 이유는 신앙고백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옮길 방법을 기도하며 찾고 있기 때문이다.

행위가 없는 신학은 공론에 불과하다. 현재 한국 교회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해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데올로기적 다원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혼돈의 시대, 이 책이 한국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바를 제시한다.

사순절 창조질서 캠페인 '보시기에 좋았더라'

1. 성도들의 실천기 2. 친환경 기업 3. 생명을 살리는 기관

“관심이 생명경시 풍조를 바꿉니다”

기독교자살예방센터 ‘라이프호프’ 대표 조성돈 교수와 함께

사순절창조질서회복 캠페인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시작됐다.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창조질서를 묵상하고, 일상에서 생명과 환경을 지키기 위한 작은 실천을 이어가고 있다. 그런데 환경을 지키는 노력은 어렵지 않게 실천할 수 있는데, 생명을 지키는 방법은 좀처럼 감이 오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기독교자살예방센터 '라이프호프' 대표 조성돈 교수(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를 만났다. 생명경시 풍조가 만연한 사회에서 크리스천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물었다. 조성돈 교수는 “관심이 생명경시 풍조를 바꾼다”면서 “교회는 성도들에게 생명의 가치를 가르치고, 성도들은 언제나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조성돈 교수와의 일문일답.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생명경시 풍조를 바뀌는 '라이프호프' 대표 조성돈 교수.

기독교자살예방센터 '라이프호프'를 소개해주세요.

“기독교자살예방센터 '라이프호프'는 자살 예방을 목적으로 세워진 단체입니다. 2010년 창립해서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핵심 사역은 생명경시 풍조에 대한 인식개선 캠페인입니다. 매년 '자살예방의 날'인 9월 10일에는 '생명보듬함께걷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생명보듬이' 교육도 주요 사역 중 하나입니다. 학생들에게 생명의 가치와 친구들 간의 신뢰와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는 교육입니다. 이 외에도 자살유가족을 위한 상담과 예배를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생명경시 풍조가 만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우리 사회 자살사망률(인구 10만 명당 명, 이하 자살률)이 26명입니다. 굉장히 높은 추세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늘 자살률이 높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IMF 사태(외환위기) 이전에는 자살률이 10명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OECD 평균 자살률이 12명이었는데 그보다 낮았습니다. 그런데 IMF 시기를 지나면서 자살률이 증가했고, 2011년 32명을 기록하며 정점을 찍었습니다. 이 변화가 무엇을 뜻할까요? 생명과 경제의 가치가 뒤바뀐 것입니다. 원래 생명은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가치였습니다. 경제는 상대적인 가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고도성장을 하면서 경제가 절대적인 가치가 됐고, 생명이 상대적인 가치가 됐습니다. 이 변화를 보여주는 조사가 있습니다. 한 리서치 회사에서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당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고 물었습니다. 주로 ‘가족’, ‘직장’, ‘돈’ 등을 꼽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많은 사람이 고민조차 하지 않고 ‘돈’이라고 답했습

니다.

과거에는 돈이 없어도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으면 살 수 있었습니다. 돈이 없는 것은 불편하지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돈이 없으면 죽음을 선택합니다. 생명보다 귀한 가치가 돈이기 때문입니다.”

생명경시 풍조가 만연한 사회에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국 교회에 성공주의와 물질주의가 아직도 남아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과거부터 한국 교회에는 믿음이 곧 성공으로 통하는 잘못된 문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기도 응답을 받고, 사업도 잘되고, 하는 일도 다 잘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사회가 고도성장을 거듭하면서 그 믿음이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물론 많은 성도가 기도응답을 받았고, 사회적으로 성공했습니다. 덩달아 한국 교회도 부흥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곧 성공이라는 생각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경제성장과 함께 부흥한 한국 교회에는 뿌리 뽑기 힘든 성공주의와 물질주의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싫은 소리를 하면 안 되고, 힘들거나 부정적인 이야기는 될 수 있으면 감추려는 문화가 있습니다. 한번은 어느 교회에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통계상 매년 1만 명 중에서 2-3명이 자살을 합니다. 이 교회는 성도가 1만 명이 넘습니까? 지난해 이 교회에서 자살한 성도가 있습니까? 자살한 성도가 있다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까?”

아무도 제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알지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우리 교회는 건강하기 때문에 자살한 사람이 없다고 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자살한 성도가 생기면 장례조차 치르지 않으려고 합니다. 과연 그 모습이 건강할까요? 정말 건강한 교회라면 마음이 아픈 사람, 힘든 사람들이 더 많이 찾아옵니다.

자살한 성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저성장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는 물질주의와 성공주의가 아니라 위로의 메시지, 생명의 메시지를 성도들에게 들려줘야 합니다. 교회는 성도들에게 생명의 가치를 가르치고, 성도들은 언제나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이 시대 한국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실천이 무엇입니까?

“자살하기 전에 ‘살고 싶다’와 ‘죽고 싶다’는 감정이 동시에 떠오른다고 합니다. 그때 그 사람을 살 수 있게 만드는 요인이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작은 고리를 걸 수 있는 가족, 친구, 이웃,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내가 누구 때문이라도 살아야지’라고 말할 때 그 누군가가 되어줘야 합니다.

무엇보다 한국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 서로 믿고 의지하는 인간관계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나만 착하게 살면 손해 보는 것 같고, 바보 같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보 같은 사람이 내 옆에 있다면 어떨까요? 엄청난 위로와 격려가 될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손해 보고, 바보 같이 사는 공동체입니다.

사회에서는 교회가 생명경시 풍조를 바꿀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종교를 앞세운 사회 활동을 무척 싫어하는데 생명경시 풍조만큼은 다릅니다. 그 주장이 옳습니다. 교회만이 생명경시 풍조를 바꿀 수 있습니다.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그 기대를 저버리면 안 됩니다.”

생명경시 풍조에서 벗어나는 구체적인 방

법을 알려주세요.

“누구나 자살 예방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살 징후를 파악하고, 전문가에게 안내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용기 있게 자살 유혹을 느끼고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을 전문가에게 연결해줘야 합니다. 자살 유혹을 느끼는 것은 미흡된 상태이기 때문에 잘못된 음성과 환상을 듣기도 합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자살예방센터로 곧바로 안내하는 게 중요합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을 위한 자살 예방 지침서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KCRP(한국종교인평화회의), 생명존중정책민관협의회가 제작한 생명을 살리는 <자살예방 지침서>를 기독교자살예방센터 '라이프호프'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해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관심입니다. 관심이 있어야 이웃과 관계 맺을 수 있고,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물질주의, 성공주의, 개인주의가 만연한 사회에서 생명, 공동체, 가족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도록 모두 함께 노력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023 사순절 창조질서 캠페인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제안

- 미사용 공간 소등하기
- 컴퓨터(메일) 데이터 정리하기
- 대중교통 이용하기
- 분리수거 잘 하기
- 텀블러 사용하기
- 일터에서 내 컵 만들기
- 이면지 활용하기
- 종이영수증 대신 온라인 명세서 받기
- 잔반 남기지 않기
- 헌혈하기
-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캠페인 참여하기

온누리교회 긴급구호 선발대 정탐보고

‘더 멋지고, 더 좋은 세상’을 기다리며

튀르키예-시리아 대지진 긴급구호 현장에서



강찬욱 집사
(더멋진세상 인도적지원팀, 이촌공동체)

오래전 하용조 목사님께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남을 돕자고 말하지 않는다. 이미 거기에 가 있다”고 하신 말씀이 기억난다. 우리는 지금 튀르키예-시리아 대지진 현장에 와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아멘!

나는 NGO 더멋진세상에서 ‘인도적지원팀’ 실행위원으로 섬기고 있다. 튀르키예-시리아 대지진 소식을 듣고 긴급구호팀 선발대로 출동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합류를 결정했지만, 막상 떠나려고 하니 마음이 복잡했다. 출발 몇 시간 전 NGO 더멋진세상 대표 김광동 장로님께 신고하고 함께 기도하는데 눈물이 쏟아졌다. 비장함도 있었겠지만 무너진 콘크리트 더미 속에서 신음하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사람들의 고통과 슬픔이 느껴지고, 나의 평안한 일상에 회개가 밀려왔기 때문이다.

2월 17일 자정 튀르키예를 향해 출발했다. 튀르키예 도착 첫날 시간이 늦어서 원점 지역에는 접근하지 못하고, 이스켄데룬 시내를 둘러



온누리교회 긴급구호 선발대가 지진피해 현지인들이 거주할 텐트를 설치해줬다.

보았다. 대지진이 발생한 주변 지역인데도 피해가 심각했다. 구호 물품 창고로 쓰이는 복음 교회에서 만난 Bedly 목사님에게 현지 사정을 듣고, 그들의 필요를 파악할 수 있었다.

이튿날 우리는 안디옥으로 향했다. 2천 년 전 바울이 전도 여행에서 오가던 길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은 여기저기 갈라진 도로와 긴급복구 중인 중장비들뿐이었다. 대지진의 흔적을 피해 좁은 고갯길을 겨우 지나면 반죽처럼 내려앉은 벽돌집들과 철근이 뒤틀리고, 콘크리트를 털어내 빼다만 서 있는 양상한 건물들이 있었다. 대지진 현장은 치열한 시가전을 치른 폐허 같았다. 흡사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과 소련의 스탈린그라드 전투로 폐허가 된 도시도 이보다 처참하지

는 않았을 것이다.

대규모 피해 지역 위주로 구호와 구조가 집중되고 있었다. 이재민들은 대부분 정부나 AFAD(튀르키예 재난긴급 구호기관)에서 제공한 텐트 시설을 마다하고 무너진 자기 집 인근에 텐트를 설치하고 지내기를 원했다. 이스켄데룬 지역 AFAD 텐트촌(150동 규모)에는 두 가정이 남았었는데 추위와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갔다고 했다.

텐트촌을 중심으로 구호품을 전달하고 있는데 사람들 대부분 텐트촌을 벗어나 있어 구호품 전달이 어려웠다. 특히 도시 외곽지역은 아직도 복구와 지원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어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우리의 임무는 초기 재난구호 소요(所要)를

파악하고, 튀르키예 재난긴급 구호기관(AFAD)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을 섬기는 것이었다. 우선 자기 집 주변에서 지내고 싶은 이재민들에게 텐트를 제공했다. 현지 협력 파트너와 함께 그들의 소요를 조사하고, 텐트 설치 안내서를 만들었다. 온누리교회 긴급구호팀 본대가 왔을 때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했다. 시범적으로 몇 개 마을을 돌면서 긴급구호를 해본 결과 반응이 대단히 좋았다. 추가로 피해가 파악된 지역에서 온누리교회 긴급구호팀 본대가 정성을 다해 준다면 이재민들에게 꼭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튀르키예-시리아 대지진 긴급구호팀 선발대는 경험 많은 성광제 장로님, 아전사령관 같은 신원석 목사님, 만사 제쳐두고 달려와 준 든든한 김동휘 형제님과 함께 꾸린 드림팀이다. 튀르키예에 입국할 때부터 항공사나 세관에서 원만하고 신속한 입국을 도와줬다. 만나는 이들과 도우러 온 사람들을 잘 대접해야 한다며 호의를 아끼지 않았다. 그만큼 온 나라가 이번 사태를 신경 쓰고 있다는 게 느껴졌다. 어려움을 당한 중에도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민과 세계공동체 식구들 덕분에 세상은 잠시 힘들지만, ‘더 멋지고 더 좋은 세상’이 될 것을 믿고 기다린다.

특별기고

대규모 재난 앞에 해야 할 일과 해선 안 되는 일



조대식 장로
(KCOC 사무총장, 마포공동체)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 남동부에서 규모 7.8의 대지진이 발생한지 3주째다. 튀르키예와 인근 시리아 양국의 희생자 수가 4만 명을 훌쩍 넘으면서 지난 2015년 네팔 대지진 피해 규모를 넘어섰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 사회가 발 빠르게 구호의 손길을 보내고 있다.

12년 전 지진 피해지역인 시리아 인근의 전쟁터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 ‘아랍의 봄’으로 내전이 발발한 리비아에서 경험한 재난 현장의 모습은 지금도 떠올리고 싶지 않을 만큼 참혹했다. 이처럼 대규모의 재난을 돕기 위해서는 뜨거운 가슴이 필요하다. 그러나 마음만으로 현장에 뛰어들면 도움이 되기보다 오히려

구호 활동에 방해될 수도 있다. 뜨거운 가슴과 함께 갖추어야 할 차가운 머리에 대해 생각해 본다.

첫째, 지진과 같은 재난 현장에는 여진이 지속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재난이 발생할 수 있다. 현장에 자원봉사로 참여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전문적으로 훈련되지 않은 채 단순히 선한 의지만으로는 도움은커녕 오히려 현장에서 혼란만 일으킬 수 있다. 재난 현장 자체의 위험성과 민감성이 있기에 현장에는 오랜 기간 훈련된 전문가가 투입돼야 한다. 아무나 갈 수 있는 곳도 아니고, 역지로 가셔도 안 되는 곳이다.

둘째, 해외 재난은 국내 재난과 대응 방식이 다르다는 점이다. 단지 장소와 물리적 거리의 차이가 아니다. 국제적인 대형 재난의 경우 국내외 기관들이 참여하는 매우 복잡한 조정 체계에 따라 진행된다. 현지 정부뿐 아니라 UN과 국제 NGO, 현지 민간기관 등 다양한 대응

기관이 존재하기 때문에 국제적인 공조와 조정 체계에 대한 이해 없이 대응할 경우 오히려 국제적인 민폐를 끼칠 수 있다.

셋째, 과거 해외 재난에서 민간단체들은 정부보다 큰 규모의 재정과 인력으로 활동해왔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대부분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 예를 들어 2010년 아이티 지진과 2015년 네팔 지진 때에도 민간단체가 정부보다 두세 배 큰 규모의 지원을 했다. 그 이후 재건복구를 위한 지속적인 개발 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활동의 동력은 국제개발협력 민간협의회(KCOC)에 소속된 140여 개 단체들을 후원하는 440만 명의 후원자들의 힘에서 나오는 것이다.

넷째, 한국에 있는 민간기구 중에는 국내 재난에 집중하는 곳과 국제적 재난에 집중하는 기관이 있다. 해외에서 재난이 발생하면 인도적 지원과 구호 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국내 단체들의 연합체는 ‘KCOC’다. KCOC의 회원 단체는 이번 튀르키예 지진 피해 지원을 위해

일차적으로 400만 달러(약 50억 원) 규모의 지원 활동을 할 예정이다. 앞으로 회원 단체들의 지원 규모는 1,000만 달러(약 126억)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KCOC는 2002년 아프가니스탄 내전부터 2022년 파키스탄 홍수까지 대규모 해외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민간단체의 조정 플랫폼 역할을 수행했다. 동시에 정부의 협력 파트너로서 역할도 하고 있다. 아울러 2008년부터 해외 재난대응 활동에 필요한 지침과 전문교육을 제공해왔다. 현재 440만 명의 후원자와 함께 140여 개 단체를 이루고, 약 1만 명의 상근 직원이 활동하고 있다. 전 세계 100여 개국에서 연간 약 7,000억 원 규모의 인도적 지원과 구호 개발 활동을 하고 있다. 지금은 따뜻한 마음을 모아 재난 대응 전문가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때다.

* 이 글은 지난 2월 9일 ‘조선일보 더나은미래’ 인터넷판에 실린 글을 전재했습니다.

명화로 읽는 성경

‘합스부르크 600년, 매혹의 걸작들’

“거장의 진품 눈으로 확인할 기회 놓치지 말라”



김진국 집사
(한강공동체, 고려대
인문예술과정 주임교수)

한국과 오스트리아 수교 130주년을 맞아 용산 국립중앙 박물관에서 ‘합스부르크 600년, 매혹의 걸작들’이라는 특별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원래는 2022년 10월 25일부터 2023년 3월 1일까지 전시 예정이었는데, 전시

회 개막 이후 연일 매진을 기록하는 등 폭발적인 호응을 받으면서 오는 3월 15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 전시는 오스트리아 빈미술사 박물관의 소장품을 전시하는 것이지만, 전시회 이름처럼 ‘합스부르크’라는 유럽의 한 왕조와 관련된 예술품 100여 점을 모아 전시하고 있다. 이 전시회에 왜 이렇게 많은 인파가 몰리는 걸까?

합스부르크, 유럽을 다스린 명가(名家)

우리는 조선 왕조 5백 년을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하나의 왕조가 5세기라는 장구한 세월에 걸쳐서 나라를 세우고, 유지했다는 사실 만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는다. 그런데 조금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이씨 왕조가 ‘조용한 아침의 나라’라는 별칭이 보여주는 것처럼, 동아시아 반도에 자리한 조그만 변방 국가인 조선을 다스린 가문이라 표현해도 무리는 아니다.

반면 합스부르크 왕조는 6백 년 동안이나 유럽 제국을 다스렸다. 합스부르크라는 가문은 한두 국가를 다스린 왕가(王家)가 아니다. 제국을 다스린 황가(皇家)이다. 그야말로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했던 가문이라 할 수 있다.

합스부르크는 초기 독일의 조그만 백작 가문에 불과했다. 그런데 13세기 말부터 19세기 초까지 오스트리아를 통치했다. 그들은 스페인을 16세기부터 18세기 초까지, 헝가리와 보헤미아를 16세기부터 20세기까지 지배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독일의 합스부르크 왕 프리드리히 4세는 1452년 신성로마제국의 황제가 되었다. 그 후로도 결혼 동맹 등 여러 방법으로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부르고뉴 등까지 복속시키는 등 합스부르크 왕가는 유럽이라는 거대제국을 다스린 명가(名家)였다.

몇백 년이나 지속한 제국의 왕가이니만큼 합스부르크와 관련된 문화예술품들의 예술적인 혹은 역사적인 가치가 얼마나 큰지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아마도 수많은 눈 밝은 이들이 그 가치를 알아보고, 입소문이 나면서 전시회가 성공한 게 아닐까 싶다.

전시된 작품 중에는 합스부르크 왕가에 속하는 스페인 펠리페 4세의 궁정화가였던 스페인



▲ 파올로 베로네세가 그린 ‘동방박사의 경배’ (1580~1588년).

◀ 오타비오 바니니의 ‘우물가의 리브가와 엘리에셀’ (1625~1626년).

바로크 미술의 거장 디에고 벨라스케스의 그림이 눈에 띈다. 그가 그린 ‘마르가리타 테레사 공주’의 초상화는 바로크 회화의 대표작이자 스페인 황금기를 상징하는 대표작인 ‘시녀들’ (1666년)에 나오는 공주와 동일 인물이다. 마르가리타 공주는 펠리페 4세의 딸인데, 훗날 신성로마제국의 황후가 된다.

바로크 미술의 거장으로 꼽히는 피에르 파올로 루벤스의 그림 ‘주피터와 머큐리를 대접하는 필레몬과 바우키스’ (1620~1625년)도 볼 수 있다. 루벤스는 스페인 합스부르크 왕가의 통치자에 의해 궁정화가로서 외교관 역할까지 부여받아 활약했던 능력 있는 인물이었다.

내가 장광설을 늘어놓으며 크리스천들에게 ‘합스부르크 600년, 매혹의 걸작들’ 전시회 연장 소식을 전하는 이유가 있다. 이번 전시회에는 벨라스케스나 루벤스와 같은 거장들의 작품도 있지만, 성경과 관련된 명화가 제법 있기 때문이다. 거장의 진품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귀한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당부하고 싶다.

베로네세, 바니니 등의 성화(聖畵) 묵상하는 기회도 풍성

성화(聖畵) 중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작품이 티치아노, 틴토레토와 더불어 베네치아 3대 거장으로 불리는 파올로 베로네세의 그림 두 점이다. 베로네세는 ‘가나의 혼인잔치’ (1563년)라는 대작으로 잘 알려진 작가이기도 하다. 항아리의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을 다룬 그림이다(요 2:1~12). 이 작품은 가로 994cm, 세로 667cm로 프랑스 루브르박물관에서 가장 큰 그림이다.

이번 전시회에 나온 그의 작품 ‘에덴동산에서 추방된 아담과 하와’ (1580~1583년), ‘동방박사의 경배’ (1580~1588년) 역시 대작이다. 전자는 금단의 열매를 먹고 낙원에서 추방된 뒤 가죽옷을 입고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을 돌보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출산과 노동의 고통이라는 징벌을 받는 모습(창 3:8~24)이 전체적으로 어두운 배경 속에서 실감나게 그려졌다.

‘동방박사의 경배’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러 온 3명의 동방박사의 모습을 그렸다(마 2:11). 황금, 유향, 몰약을 들고 온 동방박사는 각각 황인종 노인, 흑인종 청년, 백인종 장년의 모습을 하고 있다. 이것은 나이, 인종, 대륙을 불문하고 열방이 구세주가 나셨음을 경배하고 찬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마리아의 뒤편에서 경배하러 온

동방박사를 바라보고 있는 요셉의 얼굴이 바로 베로네세의 초상이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와 더불어 르네상스 3대 천재로 불리는 라파엘로 산치오의 그림도 볼 수 있다. 라파엘로가 1600년경 그린 ‘기적의 물고기잡이’와 ‘아테네에서 설교하는 바울’을 바탕으로 태피스트리로 만든 작품이다. 태피스트리란 쉽게 말하면 장식용 카펫인데, 무척 비싼 장식품에 속한다.

‘기적의 물고기잡이’는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하고 허탈해하는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눅 5:4)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에피소드를 묘사하고 있다. ‘아테네에서 설교하는 바울’은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아테네에 들러 회당과 아고라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행 17:16). 이 두 태피스트리는 가로, 세로가 4m가 넘어 한눈에 보기가 힘들 정도의 대작이다.

오타비오 바니니가 그린 ‘우물가의 리브가와 엘리에셀’ (1625~1626년)도 주목할 만하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의 아내를 고르기 위해 그의 심복 엘리에셀을 자신의 고향 하란으로 보냈다(창 24:1~27). 우물가에서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이 몰고 온 낙타에게도 끼꺼이 물을 권하는 여인을 이삭의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엘리에셀이 기도한다. 그의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가 나타나 그에게 물을 권한다. 17세기에 그려진 오타비오 바니니의 그림은 아직도 색채가 선명하다. 리브가가 따라주는 주전자에서 물방울이 화면 밖으로 튕겨 나올 듯이 생생하다.

이밖에도 안젤로 솔리메나의 ‘성가족’, 코르넬리스 보스의 ‘기쁨부음을 받는 솔로몬’, 안브뤼엘 1세의 ‘이집트 피난 중에 휴식 취하는 성가족’, 안브뤼엘 2세의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 청동으로 만든 ‘십자가 모양의 해시계’나 ‘성 세바스티안’ 조각상 등도 볼 만하다.

사족이지만 빈센트 반 고흐는 평생 단 한 점의 작품밖에 팔지 못하고 자신의 영원한 지지자였던 동생 테오 반 고흐가 유일한 후원자(Patron)였다. 반면 위에서 언급한 화가들처럼 궁정화가로 임명받거나 교황이나 추기경 같은 강력한 후원자를 만나서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친 행복한 예술가들도 많다.

이번 특별전시회에 작품이 나온 화가들은 합스부르크와 같은 명문가의 강력한 후원을 받았기에 대작을 내놓을 수 있었을 것이다. 얼마 남지 않은 ‘합스부르크 600년, 매혹의 걸작들’ 전시회를 관람하면서 크리스천으로서 성경 명화를 직접 보고 묵상하는 호강을 누리기를 바란다. 아울러 예술가들에게 필요불가결한 후원(Patronage)문제도 진중하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맛있는 말씀 해설

“땅을 정복하라”(창 1:28)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창 1:28 b).

“땅을 정복하라”는 명령을 환경을 파괴하면서 사람들의 이익만을 추구해도 된다는 뜻으로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다. “정복하라”는 표현을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무지 때문이며, 성경 말씀의 맥락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세상에서는 정복을 통해 파괴하고, 빼앗고, 노예로 삼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빼앗으려 정복하시는 게 아니다. 도리어 자신의 것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려고 정복하신다. 또 힘으로 정복하시는 게 아니라 먼저 희생하고 사랑하십시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몸과 마음을 다해 사랑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정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땅을 정복하라는 것이다. 사람이나 동물들을 정복하는 게 아니다. 이 말씀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어지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명령과 연계해서 살펴봐야 한다. ‘

다스린다’는 것은 통치하는 것이다. 세상에서는 권력자들이 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다스리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림은 자유와 질서, 목마름과 배고픔이 없는 풍성한 삶을 주시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신 것은 지구의 청지기로서 각종 생명체가 자유롭고, 건강하고, 풍성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진화론에 매몰된 세상에서는 자연을 신처럼 존중하면서 사람이 간섭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이 최고이자 최선의 결과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 그래서 불쌍한 야생동물이 마실 것과 먹을 것이 없어서 해마다 자연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강한 포식자의 어린 새끼들이 다른 포식자들에게 잡아 먹혀도, 그래서 멸종 위기 동물이 되어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산과 들에서 자연 발화되어 거대한 불이 나더라도 생태계의 순리니까 그대로 뒀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자연과 생태계, 야생동물을 인간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자연보호의 바른

방법이라는 주장은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다.

기후변화 문제 등으로 산불, 홍수, 가뭄, 한파, 폭서 등의 극단적인 현상들이 증가하면서 환경을 회복시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류가 뼈아프게 경험하고 있다. 생태계를 돌보지 않고 파괴함으로써 깊은 산속에 있던 박쥐로부터 다양한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전파되어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엄청난 일들도 경험했다. 지구 생태계를 파괴한 사람들이 다시 생태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진화론자들의 주장처럼 자연을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실천해야 한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생명체들이 자유롭고 풍성하게 살 수 있도록 생태계를 회복시켜줘야 한다. 산에는 나무가 가득하고, 바다는 산호가 살 수 있는 깨끗한 환경이 되어야 한다. 다친 야생동물도 적극적으로 치료해서 다시 야생으로 돌아가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산불이 나면 빠르게 진압해서 생명체들이 더는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모든 생물을 다스리기 위해 땅을 정복하는 것이다.

창세기 2장 5절에 정복되지 않은 땅을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표현하고 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땅을 개간해서 곡식을 수확하고, 가축들을 키우며, 동시에 야생동물이 잘 살 수 있도록 생태계를 풍성하게 하려고 “땅을 정복하라”는 말씀을 주셨다. 사람도 먹고살기 힘든데 어떻게 야생동물까지 돌보느냐고 의문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야생동물도 잘 살 수 있는 땅을 만들면 사람도 더 건강하고 풍성하게 살 수 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행 20:35)는 말씀이 모든 삶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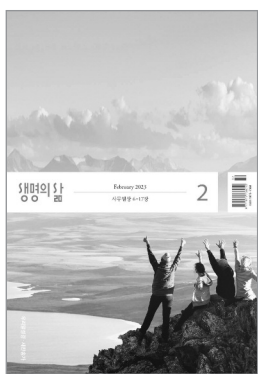


이은일 장로
(성북공동체, 고려대학교
교 의과대학 교수)

〈생명의 삶〉 QT 프리뷰(Preview)

악한 영이 틈타는 악한 마음

2월 27일~ 3월 5일
사무엘상 17:41~19:17



를’으로 골리앗 앞에 선다.

▶블레셋 최고의 전사인 골리앗은 자신의 상대가 소년이라는 사실에 수치심을 느껴 자신을 ‘개’로 여기느냐고 반문하며 다윗을 저주한다.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다가오는 골리앗을 향해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나아간다고 말한다. 다윗은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선포하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승리를 주시리라 확신한다. 골리앗이 다가오자 다윗은 주머니에 있던 돌을 꺼내 물매로 던진다. 다윗의 물매는 골리앗의 이마를 명중시키고, 이마에 돌이 박힌 골리앗은 땅에 엎드러지고 만다. 다윗의 승리는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의 큰 승리를 가져온다.

묵상포인트 1: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 골리앗은 자신과 싸우기 위해 나온 다윗을 보며 승리를 자신한다. 힘과 무기 등 자신에게 있는 조건이 상대적 우위에 있기 때문이다. 반면 다윗은 칼과 단창이 아니라 ‘하나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선다.

묵상포인트 2: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다윗의 이름이 부각되기 시작한다. 사울은 승승장구하는 다윗을 두려워하며 시기한다. 사울의 눈에 다윗은 함께하고 협력하기보다 견제하고 결국 제거해야 할 대상이다. 자신의 왕권 유지에 걸림돌이기 때문이다. 힘이 있는 권력자가 시기심을 다스리지 못할 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하나님은 이를 어떻게 보실지 묵상하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라고 노래한다. 이 일로 다윗은 사울에게 공신이 아니라 시기 대상이 된다. 사울은 딸의 사랑마저 다윗을 죽이는 일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다윗에게 사위가 될 것을 제안한다. 다윗은 자신이 가난하고 천하다고 말하는데, 이는 당시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 준비해야 할 ‘신부값’이 없다는 의미다. 이에 사울은 신부값 대신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요구한다. 이는 블레셋 사람과 싸움 중에 다윗을 죽게 하려는 계략이었다. 그러나 다윗은 블레셋 사람 200명의 포피를 가져오고, 결국 사울은 딸 미갈을 그의 아내로 준다.

묵상포인트 3: 다윗에 대한 적대감이 커진 사울의 마음에 악한 영이 임한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영이 이미 떠났기에 사울은 불안정하며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다. 사울은 노골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다윗의 생사는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 사울의 자녀들인 요나단과 미갈을 통해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지키시는지 묵상하자.

▶사울의 악한 의도가 더 담대해진다. 백성의 눈치를 보며 은밀하게 행하던 사울은 이제 공개적으로 “다윗을 죽이라”고 명한다. 그러나 아들 요나단의 권고와 설득으로 사울은 악한 의도를 잠시 내려놓는다. 다윗을 향해 품은 사울의 악한 마음에 악령이 틈을 탄다. 사울은 수금을 타는 다윗을 향해 힘껏 창을 던지고, 생명의 위협을 느낀 다윗은 도피한다. 그 밤에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병사들을 다윗 집으로 보낸다. 미갈은 아버지의 계획을 알아채고 다윗이 도망가도록 도와준다.

- 적용을 위한 가이드

▶골리앗에게 전쟁 승리 방식은 ‘외적 조건’이었지만, 다윗에게는 ‘만군의 하나님’이셨다. 내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돌파할 일(대상)은 무엇인가? 온전한 신뢰를 방해하는 목록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자. ▶왕권에 대한 집착으로 사울은 다윗을 시기한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존중하며 협력하지 못하고, 시기하며 견제하는 대상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 사랑으로 대하기를 힘쓰자. ▶사울의 악한 마음에 악령이 틈을 뚫었다. 사탄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죄 된 생각을 내어 버리자. 그리고 성령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시도록 간구하자. / 〈생명의 삶〉 편집부

온누리가 함께 하는 기도

남편의 회복과
가정을 위해서!

지난해 8월 교통사고를 당한 남편 정지혁 형제를 위한 기도를 부탁했던 박상희 자매입니다. 많은 성도께서 기도해주셔서 남편이 무사히 회복되어 일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건강했던 남편이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하고 지금까지 정신없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희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님들의 사랑, 중보기도의 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거의 이전과 같은 일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통해 저희 가정은 서로의 존재를 더욱 사랑하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위급한 상황에 있는 남편이 떠올라 두려운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사 41:10)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였고, 마음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중보기도하고 있다는 많은 성도님의 격려와 기도 덕분에 남편이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가정은 중보자님들께 빛진 자가 되었습니다. 저희 가정도 중보기도의 은혜를 흘려보내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중보자로 살아가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고, 회복 중인 남편의 몸이 이전과 같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고.

/ 박상희 자매(강동온누리교회)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쉽과 게으름의 차이

“게으르면 성경적이지 못한 건가요? 주중에 회사 출퇴근하느라 피곤해서 주말에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약속도 안 잡고, 집에서 게임만 합니다. 요즘에는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릴 때가 많고요. 게으름이 죄인가요? 그렇다면 게으름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없을까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게으름’을 쉽게 생각한다. 보이는 명확한 죄들에 대해서는 경계하며 사는데, 게으름만큼은 당연히 수용할 수 있는 인간 본성 중 하나라고 여길 때가 많다. 그러나 성경은 게으름에 대해서 분명하게 경고한다. 특히 잠언에 게으른 사람들을 향한 경고가 많다.

“게으름뱅이의 욕심은 그 자신까지 죽이니 자기 손으로 어떤 일도 하기 싫어하기 때문이다”(잠 21:25).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사람은 일을 망치는 사람의 형제다”(잠 18:9).

“나, 게으름뱅이야, 개미에게 가서 그들이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잠 6:6).

“게으름뱅이는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에 떠 넣는 것조차 귀찮아한다”(잠 26:15).

이 밖에도 잠언의 많은 곳에서 게으름을 경고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게으르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사람을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셨기 때문이다(엡 2:10). 우리는 게으름이라는 어리석은 본성을 이기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의의 길로 걸어가야 한다. 죄인된 인간의 본성은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지 않는다. 게으름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

어떻게 게으름에서 벗어나할 수 있을까? 답은 간단하다. 로마서 13장 14절과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백과 같이 그리스도를 옷 입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다. 내가 살고자 하는 삶의 방법을 따라 사는 게 아니다. 예수께서 뜻하신 방향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모든 일에서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를 묻기보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WWJD;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묻고 그 답을 따라 살아야 한다. 집에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순간에 예수님이 정말 그

것을 원하는지를 물어보라.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다. 하지만 당연하게 온라인 예배를 선택하기 전에 예수님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게 옳은지를 물어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다.

많은 청년이 게으름이 찾아오는 갈등의 순간 자신에게 묻고 답하는 교만의 Q&A를 한다. 내가 원하는 답은 결국 나를 패망으로 이끌 뿐이다. 다이어트를 생각해 보면 쉽다. 먹고 싶은 대로 먹으면 다이어트를 성공할 수 없다. 나의 본성과의 전쟁에서는 아무리 겸손해도 부족함이 없다. 게을러지고 싶은 나의 육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하고 끊임없이 예수님께 물어야 한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게 쉽이란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에게 로렘나무 아래서 쉬를 허락하셨다. 누구하나 그것을 게으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는 일꾼들에게 휴식을 허락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쉽과 게으름의 차이는 무엇이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가이다. 나의 최선의 노력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

는가? 나의 게으름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가?

인생의 주도권을 절대로 게으름에 내어주면 안 된다. 게으르게 사는 사람들이 자기변명을 한다. 만약 당신이 지금 ‘게으름이 죄인가?’라는 고민을 하고 있다면 이미 게으름에 주도권을 내주었거나 내어주려는 가능성이 매우 크다. 지금 당장 사단과의 협상 테이블을 박차고 나오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오늘을 살아가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처럼 눈가림만 하지 말고 주를 경외함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십시오”(골 2:3b).

말씀을 따라 하루를 살고,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한다면 당신의 삶에서 게으름이 사라지고, 사명을 다하는 오늘이 시작될 것이다.



최성민 목사
(SNS청년부)

크리스천을 위한 부부상담

사랑의 사계절

결혼을 생각하는 예비 커플에게 건네는 중요한 조언이 있다. 서로를 알아가는 충분한 시간을 가져 보라는 조언이다. 그 사람과 사계절을 보내보라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사계절은 단순히 1년을 말하는 게 아니다. 상대방의 많은 것을 알아보고 이해하는 양적, 질적인 시간을 의미한다. 이성이 가장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 가장 우울해 하는 모습, 낙망했을 때 모습, 분노했을 때 모습을 함께하면서 앞으로 그 이성과 발생할 수 있는 관계의 파도나 출렁임을 경험해 보라는 뜻이기도 하다. 어쩌면 서로 사랑으로 충만했을 때가 가장 상대방에게 눈이 가려진 기간이라고 볼 수 있다. 정말 행복하고, 상대의 단점이 전혀 보이지 않는 시기를 보내면서 인생의 진정한 내 편을 만난 기쁨에 정신이 혼미하기까지 한 시간을 보낸다. 그렇게 부부가 된다면 결혼 이후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인간이 무슨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피해야 하는 시간이 있다. 극도로 행복한 때거나 극도로 불안정한 때다. 그때는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는 게 지혜롭다. 연애는 서로에게 가장 의미 있고 즐거운 시간이 틀림없다. 그러나 인간은 늘 행복할 수 없다. 여러 개인적인 역사와 견해, 스토리를 가진 성인 두 사람이 만나서 사랑을 주고받는 특별한 관계를 유지할 때 반드시 행복과 함께 갈등이 나타난다.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나타나는 것은

정상적인 반응이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누구의 미성숙함도 아니다. 당연히 부딪히는 과정이다. 그 과정을 통해서 자신을 더욱 알아가고, 상대방도 알아간다. 나와 상대방을 알아가고 수용하는 과정에서 서로에게 헌신할지, 결혼을 맹세할지를 결단하게 된다. 커플은 가장 행복한 시간도 함께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갈등도 함께 하면서 문제 해결 과정을 통과하게 된다. 가장 유능한 항해사는 평온한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이라기보다 풍랑을 잘 극복하고,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연애하는 동안 두 사람이 행복한 시간을 잘 보내는 것도 중요하고, 관계의 위기를 잘 극복하는 경험도 중요하다.

결혼 이후에도 여전히 부부는 관계의 사계절을 경험한다. 결혼 전에 충분히 서로 따뜻한 봄날도 경험했고, 추운 겨울도 경험하면서 결혼 후에도 문제를 잘 극복할 수 있다고 자신하다가 그 자신감이 자신의 이상적인 확신에서 나온 거라고 후회하고 자책하기도 한다. 결혼 이후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고백한다.

“내가 결혼 전에 당신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은 정말 작은 부분이었다.”

결혼 이후 서로를 알아가는 모습이 결혼 전보다 훨씬 많다. 부부가 사랑할 때가 있고, 마음이 상할 때가 있다. 행복할 때가 있고, 인정하기 힘들지만 우울할 때도 있다. 배우자가 천사처럼 좋아 보일 때가 있고, 세상 누구보다

보기 싫은 마음이 들 때도 있다.

결혼 전 서로 사계절을 잘 보냈다고 확신하고 결혼해도, 결혼 이후에는 또 다른 모양의 사계절을 만난다. 여전히 나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갖게 되고, 배우자를 알아가는 시간도 갖게 된다.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통해서 더욱 용납하고, 수용하게 된다. 그 시간을 거치면서 부부는 더욱 한 몸으로 뭉쳐진다. 서로에 대해 인내와 용납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미움과 갈등과 분노만 품게 된다면 한 몸 다운 모습이 아니라 깨어진 부부의 모습을 갖게 될 것이다. 한겨울 차갑게 식어버린 커피잔과 같은 모습이라 할 수 있다.

결혼 이후 부부관계의 사계절을 맞게 될 때 어떤 마음 자세가 필요할까? 행복과 즐거운 시간을 맞이할 때 부부는 서로 기뻐할 수 있다. 그러나 힘든 일을 만나면 급격하게 부부관계가 한겨울에 진입한다. 온기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고, 그 어느 때보다 찬바람 부는 시간을 맞게 된다. 하지만 부부가 경험하는 관계의 겨울도 정상적인 시간이다. 어쩌면 부부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다.

그 시간을 지나면서 부부는 긍정적인 믿음을 꼭 붙들 필요가 있다.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반드시 회복하는 관계의 봄날이 올 거라는 믿음을 말이다. 부부가 늘 행복감을 누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부부가 늘 불행한 상태만 지속하는 것도 아니다.

부부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중심의 가정을 만들고자 한다면 반드시 관계의 봄날이 올 것이다.

부부가 간혹 느낄 수 있는 극도의 불행감 속에서도 회복의 봄씨를 볼 수 있는 믿음과 기대가 있어야 한다. 당장은 힘들어도 하나님이 놀랍게 회복시키실 거라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성경은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전 3:4),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전 3:8)”고 말씀하셨다. 부부가 등 돌리는 경우라도 회복의 희미한 등불을 볼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실 거라는 믿음과 기대를 놓지 말아야 한다. 이성적,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힘든 일도 있지만, 자신도 알 수 없고 배우자도 알 수 없는 시간을 통해서 서로에 대한 분노와 증오의 마음을 사르르 녹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인내하고, 긍정성을 갖고, 부부에게 닥치는 관계의 겨울을 지나가자.



황규복 박사,
김숙경 소장 부부
(두란노 결혼예비학교
부부강사, 〈그런 당신이
좋다〉 저자)

문화해설사가 들려주는 '기독교문화'

보리울 무궁화에 담긴 신앙

남궁억 선생의 지칠 줄 몰랐던 민족계몽과 무궁화운동



임찬웅 집사
(남양주온누리교회, 문화해설사, <강화도(준엄한 배움의 길)> 저자)

강원도 홍천을 지나다 보면 '무궁화의 고장 홍천'이라는 표지를 볼 수 있다. '웬 무궁화? 홍천이?'라는 의문이 생길 것이다. '알면 보인다'는 말이 있다. 독립운동가이

자 교육자, 언론인, 교회 장로인 한서 남궁억 선생이 1918년 홍천군 서면 모곡(보리울)에서 무궁화 보급 운동을 했다.

남궁억 선생은 서울 정동에서 태어나 우리나라 최초 영어학교인 동문학을 졸업했다. 선생의 첫 관직은 고종의 영어통역관이었다. 당시 민중들이 관직을 사교팔았다. 뒤죽박죽 세상에서 선생은 깨끗한 선비적 기질을 내 놓지 않았다. 독립협회, 언론인, 목민관으로 활약하며 오직 나라를 위해 생을 바쳤다.

올곧은 선비가 설 땅이 좁았다. 나라에서는 그를 체포해 옥에 가두었다. 그의 어머니는 사식을 넣으면서 "억아, 절대로 굴복하지 마라!"고 용기를 주었다. 을사늑약, 경술국치 이후에는 교사로 활약하면서 민족계몽운동에 힘을 쏟았다. 그가 활동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준 곳이 교회였다. 남궁억 선생은 1910년 종교교회(사직동)에서 세례를 받았다. 친구이자 사돈이었던 윤치호의 권유가 있었다. 1912년에는 상동교회 상동청년학원



한서 남궁억 선생이 강원도 홍천에 설립한 모곡예배당을 복원한 건물.

원장을 겸하면서 청년들에게 독립사상 고취, 애국가사 보급, 한글서체 창안 및 보급에 힘썼다. 선생은 세례를 받은 지 5년 뒤 평신도가 목회자를 대신해 설교할 수 있는 '본처 전도사' 직분을 받았다.

독립을 위해서라면 몸을 아끼지 않아서일까? 1918년 건강이 악화해 조상들이 살던 홍천 보리울로 낙향했다. 보리울은 제법 넓은 농경지를 가진 산골이다. 홍천은 산이 많기로 이름난 곳인데, 산 사이에 넓은 공간이 숨어 있었다는 게 놀랍다. 선생은 모곡교회와 모곡서당을 세워 교육과 설교를 통한 민족계몽운동을 이어갔다. 처음에는 교회를 설립한다고 주민들의 눈총을 받았다. 그렇지만 손 놓고 있을 선생이 아니었다. 젊은 청년들을 모아 문맹 개선에 나섰다. 낮에는 교사로, 밤에는 동네 어른으로, 주일에는 목회자로 시간을 귀하게 썼다. 1922년에는 모곡학교를

개교하고 개화된 교육을 했다. 그의 가르침은 신앙에 바탕을 둔 민족주의 교육이었다.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 많은 노래를 지어 불렀다. 선생이 1922년에 지은 '일하러 가세'는 지금까지 애창되는 찬송가이다.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이 강산에 할 일 많아 사방에 일꾼을 부르네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해,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

선생은 보리울 유리산에 조국광복기원제단을 쌓고 조국 해방을 위해 기도했다. 현재 한서초등학교 뒤편 유리산 기슭에 선생의 무덤이 있고, 뒷산을 조금 오르면 기도처가 있다. 선생은 교육, 노동뿐만 아니라 나라꽃 무궁화를 보급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했다. 일본이 벚꽃을 나라 곳곳에 심어 놓고 벚꽃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고 떠들고 다닐 때

우리는 무궁화 민족이라고 일갈했다. 우리나라는 고대부터 무궁화의 나라라 불렸다. 여름 내내 피고 지고 또 피는 꽃처럼 민족이 다시 일어서기를 간절히 바랐던 것이다.

1933년 남궁억 선생의 영향을 받은 홍천 일대 기독교인들이 결성한 비밀 단체가 '십자가당'이다. '공존공영의 지상천국 건설'을 목표로 삼았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되는 '지상낙원'을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그런데 십자가당이 남궁억 선생을 감시하고 있던 일제의 감시망에 걸렸다. 1935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남궁억 선생은 10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그가 십자가당 결성에 관여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일제의 목표는 선생이었고, 이를 빌미로 선생이 추진하는 무궁화운동과 계몽운동을 탄압할 계획이었다.

70세 고령인 선생은 고문과 투옥으로 만신창이가 되었다. 윤치호의 보증으로 석방되기는 했지만, 옥살이에 얻은 병으로 늙게 되었다. 결국 선생은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1939년 4월 5일 77세의 나이로 숨을 거두었다. 죽어서도 민족의 거름이 되고자 했던 남궁억 선생은 진정한 민족지도자였다. 선생의 지칠 줄 몰랐던 민족계몽과 무궁화운동은 역동하는 대한민국의 소중한 거름이 되었다. 보리울에는 한서초등학교, 유리산 기도처, 모곡예배당, 한서 남궁억 기념관, 무궁화동산이 마련되어 있다.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찾아가 봐야 할 곳이다.

책으로 배우는 '기독교 교파'

교회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방법



기독교 교파 한눈에 보기



만해준 저

<기독교 교파 한눈에 보기>
전희준 저 | 이레서원 | 11,000원

차이점을 알면 더욱 풍성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다. 교파의 탄생과 배경, 교리적 특징들을 알면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다른 교회를 더욱 존중할 수 있다. 기독교의 역사가 궁금한 성도, 교단과 교파를 공부하고 싶은 성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서 교회는 왜 그렇게 수많은 교파와 교단으로 나뉘는 거야?"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파'와 '교단'에 대한 의문이 들 때가 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성경도 한 권인데 왜 수백여 개의 집단으로 나뉘는지 궁금증이 생긴다. 그런데 이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줄 답을 얻기가 어렵다.

이 궁금증을 단번에 해결해줄 책이 있다. 전희준 목사(시카고 헤브론교회 협동목사)가 쓴 <기독교 교파 한눈에 보기>다. 이 책은 복잡하고 어려운 기독교 역사와 신학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냈다. 교파들이 왜 생겼는지, 각 교파의 차이점과 공통점이 무엇인지 알기 쉽게 설명한다. 족보를 보면 가문의 역사를 알 수 있듯이, 이 책을 읽으면 기독교의 역사를 알 수 있다.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다른 교단의 교회 역사와 특징을 배울 수 있어서 유익하다.

기독교의 다양한 교단과 교파는 믿음의 본질에는 차이가 없다. 그러나 신앙을 실천하는 모습에서 조금씩 다르다. 그

기독교 OTT '풍당' 추천 콘텐츠

그리스도교 교파의 가계도



내 삶에 신학 '기독교 교파'

총 7차례 보편교회회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일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관계', '단성론자들에 대한 유화적인 태도', '성상 사용' 등을 주제로 진행했다.

"초대교회는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각 도시 대표가 모였습니다. 지역이 넓고 문화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항상 갈등이 있었습니다. 서방과 동방은 1054년 로마를 중심으로 한 서방 로마 가톨릭,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한 동방 정교회로 나뉘었습니다."

동방 정교회의 대주교가 서방 로마 가톨릭의 교황을 이단으로 지정했고, 서방 로마 가톨릭에서도 동방 정교회의 대주교를 파문시켰다. 이 사건을 계기로 동서방교회가 나뉘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나타난 교파, 개신교의 다양한 교파와 성공회에 대한 강의도 이어진다.

왜 하나의 교회가 나뉘었을까? 이 질문에 장로회신학대학교 박경수 교수가 세 차례 강의한다. 기독교 OTT '풍당' 콘텐츠 내 삶에 신학 '기독교 교파'에서는 각 교파의 분열과 특징을 알아본다.

첫 번째 강의에서는 로마 가톨릭과 정교회가 나뉘는 과정을 설명한다. 초대교회는 로마, 콘스탄티노플, 안티옥, 예루살렘,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부흥했다. 325년 니케아에서 시작된

2000선교, '2023 미션컨퍼런스' 개최

온누리교회 선교 리더십 100여 명 참석

“올해 온누리교회 선교는 아웃리치 활성화 및 로잔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한다.”

2023 미션컨퍼런스가 지난 2월 18일(토) Acts29 비전빌리지 시안홀에서 막 올랐다. 김홍주 목사(2000선교 본부장), 임훈 장로 등 온누리교회 선교 리더십 100여 명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참석했다. 이날 미션컨퍼런스에서는 김홍주 목사 ‘2023 온누리 선교 방향 및 로잔대회 준비 보고’, 정대서 장로 ‘로잔대회’, 배행삼 목사 ‘2023 온누리교회 아웃리치’를 주제로 발표했다.

박종길 목사(서빙고온누리교회 담당)는 2000선교 리더십들에게 “Acts29 비전을 이어나가는 교회, 아웃리치를 더 깊이 더 뜨겁게 경험하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해달라”고



2023 미션컨퍼런스 현장.

권면했다.

김홍주 목사(2000선교본부)는 “올해 온누리교회 선교는 아웃리치 활성화, 로잔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성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당부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예수님과 함께 보낸 겨울방학!

2023 차세대 겨울사역 종료

차세대가 예수님과 함께 겨울방학을 보냈다. 파워웨이브 패션집회는 ‘Follow The Way’를 주제로 막 올랐다. 캠퍼스 연합 패션집회 1월 26일부터 28일, 서빙고 2월 11일부터 13일, 양재 2월 18일부터 20일까지 이어졌다. 다른 캠퍼스도 각 일정대로 진행됐다.

차세대 예수님의꿈아이, 꿈이자라

는팡 겨울 캠프도 이어졌다. 예꿈 캠프는 ‘우리 몸으로, 품당!’을 주제로 유치부 2월 12일(일)과 19일(일), 유년부 2월 11일(토)과 12일(일) 열렸다. 꿈팡 겨울 캠프는 ‘창세기 대홍수’를 주제로 초등부 2월 18일(토)과 19일(일), 소년부 2월 25일(토)과 26일(일) 진행했다. 다른 캠퍼스도 각 일정에 맞춰 진행됐다.

“지역사회 더 열심히 섬기는 교회”

강동온누리교회 창립 15주년 감사예배

강동온누리교회가 지난 2월 26일 창립 15주년 감사예배를 드렸다. 강동온누리교회는 지난 2008년 2월 24일 캠퍼스 복음화를 비전으로 품고 ‘건대온누리교회’를 창립했다. 2010년 10월 3일 강동구 천호동으로 자리를 이전하면서 ‘강동온누리교회’로

교회 이름을 바꿨다.

이준호 목사(강동온누리교회 담당)는 “지역사회를 더 열심히 섬기며, 어려운 이웃과 외국인 근로자, 이주민 등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을 더욱 귀하게 섬기는 교회가 되길 기도해달라”고 당부했다.

CMN 수기요법 기능스쿨 초급-고급

서빙고 3월 14일, 양재 3월 16일 개강

CMN 수기요법 기능스쿨 초급-고급반이 서빙고와 양재온누리교회에서 개강한다. 서빙고온누리교회는 3월 14일부터 5월 16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쉼터홀, 양재온누리교회는 3월 16일부터 5월 18일까

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충성홀에서 10주 동안 진행된다.

‘신체 주요 부위 혈자리 지압’ 등을 주제로 이항재 강사가 강의한다. 참가신청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문의: 010-9267-7123

한국어선교학교 참가자 모집

한국어선교학교에서 한국어 선교사를 모집한다. 강의는 3월 4일부터 5월 13일까지 온라인(2주차~8주차)과 오프라인(1주차, 10주차)으로 진

행된다.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한국어 교습법, 한국어 교습법 시연, 선교 전략 등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문의: 010-6652-3596

3월 28일 온라인커뮤니티 개강

매주 화요일 오후 8시 온라인(Zoom)

온누리 온라인커뮤니티(Onnuri Online Community: 이하 온라인커뮤니티)가 개강한다. 3월 28일부터 6월 27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8시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다. 이번 학기 온라인커뮤니티에서는 한건수 대표(국민대 겸임교수), 여성민 목사 등이 강의한다.

온라인커뮤니티에 참가하고 싶은 성도는 온누리교회 홈페이지(www.

onnuri.org)에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커뮤니티는 여러 사정으로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20세 이상 성도들을 위한 맞춤 온라인 공동체다. 개인 사정으로 공동체에 소속할 수 없었던 성도, 공동체 활동에 무관심했거나 혼자 신앙 생활하는 성도, 전도대상자, 구도자까지 포함한다.

문의: 02-3215-3214

온누리 전도사역자 다 모여라!

3월 6일 ‘전도 페스티벌’ 서빙고 두란노홀

전도인들을 위한 ‘전도 페스티벌’이 3월 6일(월) 오후 6시 30분 서빙고온누리교회 두란노홀에서 열린다.

전도 페스티벌은 온누리교회 전도사역자들을 축복하는 시간이다. 전도 영성을 고취하고, 헌신적인 전도사역자를 위로하고 격려한다. 전도

학교, 전도콜센터, 전도폭발 사역자, 각 공동체 전도사역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전도 페스티벌에서는 전도 비전 선포, 메시지, 전도특강 및 영성훈련, 교제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문의: 02-3215-3214

서울역쪽방상담소, 쪽방 78가구에 방한 커튼 후원

영어예배부, 우리금융미래재단, (주)바이맘 협력

동자동 쪽방 창문에 싱그러움 봄 풍경이 새겨졌다. 지난 2월 18일(토) 서울역쪽방상담소(온누리복지재단 수탁 기관)에서 동자동 쪽방촌 78가구에 방한 커튼을 달아줬다. 우리금융미래재단(우리금융그룹), (주)바이맘(소셜벤처 회사), 영어예배부 봉사자들이 협력했다. 쪽방촌 한 주민은 “쉬는 날인데 여기 와서 예쁜 커

튼 달아줘서 정말 고맙다”고 했고, 유호연 소장(서울역쪽방상담소)은 “시종일관 신나게 섬겨준 영어예배봉사자들과 웃음으로 맞이해준 주민들께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김민욱 대표이사(㈜바이맘)는 “쪽방 주민들에게 무엇이 필요할지 고민하면서 준비했는데 다행히 주민들이 좋아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광동 장로 KCOC 부회장 선출

NGO 더멋진세상 대표 김광동 장로가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orea NGO Council for Overseas Development Cooperation, 이하 KCOC) 부회장으로 선출됐다. KCOC는 국제 구호개

발과 인도적 지원 활동하는 140여 개 NGO 단체들의 연합체다.

김광동 장로는 “온누리교회와 NGO 더멋진세상이 지극한 이웃들을 섬기는데 더욱 전념하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헌신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세례명단

서빙고 양종운 780106 이선화 570405 유아 권나인 191120 권지현 신은혜 김리지 210125 김태환 정나래 김이레 220702 김상현 선고인 김채린 190513 김지성 손예린 김채아 190513 김지성 손예린 김하울 210818 김형철 김정효 손로이 220617 손범준 이경진 손태양 210714 손지훈 나인영 이시은 220428 이진우 조세미	이예원 220428 이진우 조세미 이조이 210116 이기현 김선미 장은서 221028 장주환 김영화 장은우 210524 장주환 김영화 조주안 180802 조강필 안순규 양재 우근영 871112 정규석 460509 최성은 750726 최정숙 651220 입교 김 은 900209 김채연 001009 유아 김 율 220328 김 솔 정승혜	김이엘 210701 김홍엽 이보슬 안지안 200916 안웅준 이혜진 안채원 210428 안현국 문선정 양하영 210810 양호승 고은실 오이레 210401 오충열 채송화 이루세 181201 이병식 강지현 이서준 220530 이선근 이슬기 이서하 220130 이용지 김지연 이유진 210427 이수민 정희영 임지안 210208 임채영 이민경 조하준 201009 조민호 민소영	<대학청년> 갈렙 조하연 020405 허브 입교 박민경 000512 박슬기 000702 이민규 991230 이윤아 020508 SNS 문준우 931223 안여진 861025 정예주 910507 정한별 940308 W 입교 최성근 941125
--	---	---	---

■ 헤브론카페를 섬기며



/ 이경원 선교사(안산 인도네시아 예배, 헤브론카페)

세바스찬의 고백

올해 온누리교회 시무예배를 드리던 날이었다. 아르바이트생을 구하지 못해서 헤브론카페의 문을 닫고 서빙고온누리교회에 갔다. 알고 봤더니 그날 헤브론카페 예약한 팀이 있었다. 깜짝 놀라 용서를 구하고 다음에 오시면 음료를 무료로 제공해드리겠다고 말씀드렸다. 감사하게도 다음 주 같은 시간에 예약을 해주셨다.

그들은 영어 동아리 모임이었다. 그중에 독일인 세바스찬이 있었다. 세바스찬은 헤브론카페가 마음에 들었는지 그 다음 날도 혼자 왔다. 이 이야기 저 이야기를 하다가 1월 30일 교환 학생 기간이 끝나서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세바스찬이 돌아가기 전에 복음을 전하겠다”고 다짐하고 헤브론카페에 자주 오라고 했다.

세바스찬은 워낙 성격이 건강하고 활발한 학생이었다. 워낙 말이 많아서 매일 친구들과 약속을 잡고, 영어를 가르쳐 줬다. 종교를 물었더니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교회에 가지 않는다고 했다. 미국에 있을 때 교회에 다녔다고 했다. 그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하나님이 나와 이 친구를 급하게 만나게

하셨다는 마음이 들었다. 세바스찬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다.

세바스찬이 독일로 가기 4일 전 헤브론카페를 방문했다. 친구들을 만나러 가기 전에 커피를 마시러 왔다고 했다. 할 말이 있으니 친구 만나고 다시 오라고 했다. 오늘이 아니면 복음을 전할 시간이 없기에 마음이 급했다. 다시 온 세바스찬에게 독일에 갈 때 가지고 가라고 준비한 선물을 줬다. 진짜 주고 싶은 선물이 있다며 전도지 <최고의 행복>을 들고 세바스찬에게 복음을 전했다. 짧은 영어 실력으로 성령님이 일하시기를 기대하며 복음을 전했다. 1시간 정도 대화했더니 세바스찬이 성경을 읽어보겠다고 했다. 그날 저녁 그와 함께 친구(안산M센터 성도)가 하는 닭갈비 집에 가서 식사하고 나오는데 친구가 밥값을 받지 않았다. 친구의 환대에 힘입어 복음은 공짜라며 다시 한번 복음을 전했다. 독일로 돌아가던 세바스찬이 공항에서 내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안녕히 계세요. 언젠가 다시 오겠습니다.

God blesses you. God loves you. I want you to find God and to believe Jesus.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신뢰합니다.”

■ CMN 수기요법 기능스쿨



/ 박현일 순장(서초B공동체)

사랑의 터치

故 하용조 목사님이 ‘터치(Touch)’를 키워드로 설교하신 적이 있다. 예수님이 공생애 사역을 통해 성령과 말씀, 기도의 터치를 해주심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궁극적으로는 부활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각종 질병과 통증도 ‘터치’가 부족해서 생기는 혈액순환 장애로 발생한다. 장시간 컴퓨터 작업을 하는 사람은 거북목 증후군을 앓고 있고, 스마트폰을 너무 오래 들고 보거나 다리 꼬고 앉는 습관으로 인해 목과 척추, 골반이 뒤틀려 온갖 통증으로 고생하고 있다. 인체 골격에 불균형적인 힘이 가해질 때 근육과 인대에 긴장이 가해지고, 혈액순환 장애가 일어나 아프고 결리는 증세가 나타난다. 이 통증은 근육이 뭉쳐있거나 눌린 곳을 손가락이나 손바닥, 팔꿈치 힘으로 풀어줘야 해소할 수 있다. 예수님이 터치하시는 사람마다 그의 심령과 육신에 변화가 일어나 병 고침을 받았던 기적이 우리 몸에서도 일어나게 된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중단되었던 CMN 수기요법 기능스쿨(이하 수기스쿨)이 지난해 9월 2년 반 만에 재개됐다. 수기스쿨을 다녀본 사람은 다 안다. 자기 몸 어딘가 아프고 결릴

때 10~20분 정도 수기치료를 받으면 씻은 듯이 나온 것 같은 느낌을 말이다.

수기스쿨 수료자들은 CMN 수기팀 소속으로 봉사활동을 한다. 주로 이주민 노동자(M센터), 탈북민 등을 대상으로 실습한다. 수기팀이 아웃리치를 다녀온 곳에서는 언제 다시 오느냐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2019년 CMN 수기팀이 러시아 브리야트 울란우데에서 봉사하고 온 적이 있는데, 그때 수기치료의 효과를 체험한 현지인들이 다시 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농어촌 교회 어르신들도 수기팀 방문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

수기치료를 배우더라도 자기 몸에는 쓸 수가 없다. 남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 다가오는 봄, 수기스쿨이 시작된다. 사랑의 터치를 통해서 그들의 통증이 가시고 기뻐하는 모습을 꼭 경험하기를 바란다. 가족과 이웃을 위한 봉사의 터치를 통해 내 마음도 뿌듯해지는 걸 실감할 것이다. 아이스쿨에 접속해 사랑의 터치를 몸소 배워볼 것을 추천한다.

CMN 수기요법 기능스쿨 초급-고급
문의: 010-9267-7123

■ 어느 이주민 사역자의 고백



/ 최명현 선교사(화성M센터)

용기 있게
하나님 나라 보여주기

국내 이주민들이 선교 대상을 넘어서고 있다. 그들이 한국 사회에서 자기들의 종교를 전하고 뿌리 내리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들이 집단을 이루는 게 그리 새로운 일은 아니다. 가깝게는 수십 년 전부터 중국인들이 국내에 여러 거점을 두고 지역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중국인들의 종교는 국내의 토속신앙이나 불교와 크게 다를 게 없다. 크게 고민할 여지가 없었다.

그런데 무슬림들은 어떻게? 이미 무슬림들도 한국 사회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다. 많은 무슬림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있고, 한국 국적을 이용해서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인스타그램에 종종 각 도시의 이슬람사원에 대한 영상이 올라온다. 최근 한 튀르키예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한국 여권을 이용해서 메카에 다녀온 것을 편집해 올린 영상을 봤다. 우리와 아주 가까이에 이슬람이 있고, 이슬람이 생각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네팔인과 인도인들을 중심으로 힌두교가 확장되고 있고, 동남아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불교 집단이 형성되고 있다.

우리나라 다음세대들이 이주민 자녀들과 함께 성장할 것이다. 지역에 따라서는 이주민 자녀들이 더 많은 곳도 있을 것이다. 성도들이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 듣는 말씀으로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 수 없다. 한국 교회에는 한국인만 있기 때문이다. 사실 어떻게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달해야 할지, 이 도전 앞에 어떻게 맞서야 할지 엄두가 나지 않는다.

다원주의 사회가 이미 되어 버린 한국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신앙인으로서 다원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이 필요하다.

선교 신학자 레슬리 뉴비킨이 저서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에서 이 고민에 대한 답을 제시했다. 다들 사느라 책 한 장 넘길 여유가 없지만, 이번 주말에 이 책 한 번 읽어보는 게 어떨까? 나와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한국 사회의 다른 종교를 가진 외국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용기 있게, 예수 바보의 삶을 보여줄 수 있기를 기도한다.

■ ‘기쁨의 샘’ 수료 간증



/ 김다니엘 성도(가명)

“네게 중요한 게 무엇이나?”

2009년 깊은 우울과 자살 충동에 시달리던 친구를 한 해 반쯤 곁에서 도왔다. 그가 서서히 회복돼 내면을 직면할 때 즈음, 내가 지독한 우울에 빠졌다. 절망의 벼랑 끝에서 2012년 봄, 회복사역 성경적 집단상담 ‘기쁨의 샘’에 참가했다.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 그 놀라운 치유를 ‘기쁨의 샘’에서 처음 맛보았다. 그리고 한 가지 결심을 했다. 난생처음 제대로 공부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그것도 사람을 살리는 의학을 말이다. 이는 지난 날 끝 모를 우울증에 빠진 친구의 방향, 유명 대학병원 의사들의 반강제적 테스트와 투약, 이롭나 상담센터와 치유사역이 보여 준 한계, 이어서 나 자신이 직접 겪게 된 깊은 우울증과 혼란 등이 정신 건강 해결책으로써의 현 의료체계, 전문상담, 일부 기독교 상담 및 치유사역에 대해 큰 회의를 불러 일으켰기 때문이다.

나는 어릴 때부터 공부와 담을 쌓은지라 대학 학위조차 없었다. 지난 십 년은 늦은 나이에 시작한 공부로 인해 숨 막히게 흘러갔다.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세 번 낙방하고 마지막 막이기를 바라 네 번째 시험을 치른 2018년

말, 결과가 좋지 않아 시험지와 책을 모두 집어 던졌다. 하나님께 “이렇게까지 했는데 대체 제가 뭘 더해야 하나요? 이제 돌아갈 곳도 없는데...”라고 따졌다. 하나님은 나를 <하박국> 3장 17~18절 말씀으로 이끄시며 “네게 중요한 게 과연 무엇이나? 무화과나, 포도송이나, 아니면 나냐?”라고 물으셨다. 그제야 무엇이 중요한지 조용히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울면서 고백했다.

세월이 흘러 의대 본과 학업과 의사 국가시험 마친 2023년 초 A대학병원 인턴 시험과 면접이 남았다. 시험 준비로 여념 없어 형편 없이 써낸 자기소개서가 마음에 걸렸다. 면접 전날 하나님이 시편 23편 4절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며 4년 전과 똑 같이 물으셨다.

“네게 중요한 게 과연 무엇이나?”

면접 날까지 시편 말씀을 계속 되뇌었다. 며칠 뒤 감사하게 합격 통보를 받았다. 하나님이 불가마 같은 나의 도전 가운데 당신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세심하고 치열하게 다지셨다. 그 고마운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 얼굴을 한 번 더 바라본다.

장로칼럼

조향진 장로
(장로중보교회모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모두가 이런 죄악을 저질렀지만 여호와를 떠나지 말고 너희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섬기라”(삼상 12:20).

우리가 비록 죄를 범하였으나 여호와를 떠나지 말

고, 마음을 다해 진솔한 회개로 돌아켜 주시옵소서. 죄의 뿌리가 완전히 제거되어 새 출발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케 하신다는 말씀을 붙잡습니다. 이 시간 참회하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 누리를 굶어 살피주시옵소서.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강도 7.8의 큰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살핌으로 조속한 구조와 빠른 재건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엄청난 절망 속에 빠져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민에게 위로의 손길을 베풀어 주십시오. 사상자가 4만 5천여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금도 잔해 속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300여 시간 만에 구조되는 기적 같은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생명의 끈을 놓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족과 이웃을 잃고 절규하는 유족들과 이재민들에게도 하늘의 크신 위로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위난 중에 있는 형제의 나라를 위해서 대한민국에서도 긴급구호대를 파견했습니다. 온누리교회에서도 NGO 더멋진 세상과 대학청년들이 이재민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신원석 사무국장을 필두로 한 1차 정

탐팀이 안전하게 귀국했고, 김광동 장로와 온누리교회 대학청년 10여 명이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영하의 극심한 추위와 여진의 공포를 무릅쓰고 재난 현장에 가 있는 긴급구호대의 영육 간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기적적으로 구출되기를 바라고, 애타게 살아 돌아오기를 고대하는 현장이 마치 전쟁터와 같습니다. 이 모습을 보며 인간의 한계를 절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간절하게 갈망합니다. 참담하고 끔찍한 재난으로 전 세계가 슬픔과 안타까움에 빠져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보호하심으로 하루빨리 이 재난을 이기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구원의 손길이 속히 임하게 하옵소서. 크리스천들의 기도와 기업들의 후원, 시민들의 온정이 계속 이어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와 민족 온누리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이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나라와 국민이 이념 갈등의 늪에 빠져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에 날로 늘어나는 무역 적자 등 복합적인 위기에 처하고 있습니다. 화해와 치유로 이 나라가 회복될 수 있게 축복해 주옵소서. 이 나라에 다시 한번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악한 길에서 돌이켜 겸허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나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온누리교회가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를 좇아온 지 38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신실하게 복음 증거와 선교에 목숨을 걸고, 세상과 열방에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 헌신하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성도가 온 맘과 영혼과 힘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충만케 하시기를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길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권사칼럼

유부귀 권사
(수원온누리교회)

〈예레미야〉 22장 15~16절 말씀이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는 수원온누리교회 노숙인사역팀을 대동하게 했다. 우리는 한 달에 두 번 수원역으로 간다. 그곳에서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게 하는 일에 온 힘을 쏟고 있다.

내가 〈예레미야〉 22장 말씀을 묵상하게 된 것은 3년 전이다. 코로나19가 시작될 무렵이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게 하는 일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말씀을 보며 큰 깨달음을 얻었다. 곧바로 지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게 뭘 줄 아니?”라며 연락을 돌리고 말씀을 나눴다. 그 시기 수원온누리교회 사회선교팀에서 노숙인사역을 해보면 어떻겠냐는 연락이 왔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는데 어떻게 거절할 수 있을까? 곧바로 “네”라고 대답했다.

노숙인사역팀이 만들어졌으니 팀원을 모집해야 했다. 코로나19 이전에 아주대학병원에서 병원사역을 할 때 만난 집사님이 떠올랐다. 긍휼한 마음을 가진 집사님이었다. 그 집사님께 연락했더니 “그렇지 않아도 요즘 노숙인들에게 무엇인가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알아보는 중이었다”고 하셨다. 미리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께 감사가 절로 나왔다. 그 뒤로 이 사람 저 사람이 모여 네 명이 사역을 시작했다. 여러 번 시행착오 끝에 사역 날짜를 정했다. 한 달에 두 번, 첫째 주와 셋째 주 수요일에 수원역에서 노숙인들을 만나기로 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수요일에 오던 봉사단체

가 빠져 노숙인들이 굶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노숙인사역팀은 처음 사역을 시작한 날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노숙인들을 찾아가고 있다. 도시락과 과일, 커피를 나눠드리고 있다.

노숙인 중에는 신용 불량자, 도박 중독자, 우울증 환자, 알코올 중독자 등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다. 어디 하나 의지할 곳 없이 저마다의 사연을 안고 길거리에 몸을 누인다. 3년 동안 그들과 살을 부대끼면서 참 많은 일이 있었다. 약값을 핑계 대며 돈을 요구하는 사람도 있었고, 한 사람은 직장생활을 한다가에 고시원을 얻어주기도 했다. 한 번 배푼 호의를 보고 더 큰 돈을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 사람들은 결국 돈을 갚지 않았고,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나지도 않았다. 사람의 마음으로는 실망할 일이지만, 어쨌든 그 순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까지 큰 사랑을 주셨는데 나도 그 사랑을 배신한 적이 있지 않던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한두 번 배신한 것도 아닌데 노숙인의 한 번 배신은 쉽게 넘어갈 일이었다.

우리를 감동시키는 노숙인들도 있다. 자기 먹을 것도 부족할 텐데 옆 사람에게 양보하는 사람도 있고, 자발적으로 사역팀을 도와 음식과 프린트물 등을 나눠주며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다. 성경말씀이 적힌 프린트물을 힘들 때마다 읽겠다며 보물처럼 간직하는 사람도 있다. 사역팀과 성경 공부, 일대일제자양육을 하던 한 형제는 공단에 취직했다. 작은 것 하나라도 가진 것을 나누는 그들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려 애쓰는 그들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느꼈다. 하나님을 전하러 온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있다. 하나님을 아는 이 귀한 일에 더 많은 성도가 동참했으면 좋겠다.

신앙에세이

허원희 목사
(남양주온누리교회)

최근에 ‘영웅’이라는 영화를 보았다. 안중근 의사(義士)의 마지막 1년을 담은 내용으로 의(義)가 우리 민족에게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를 감동적으로 보여주는 영화다.

안중근 의사는 연해주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중에 민족의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가

하얼빈을 방문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그를 암살할 계획을 세운다. 독실한 신자인 그는 한 사람을 죽이려는 계획에 죄책감을 느끼지만 전쟁에 참여하는 독립군의 장수로서 조국을 쳐들어온 적장을 처단하는 당위성으로 그 죄책감을 이겨낸다. “눈앞의 사사로운 이익보다 의로움을 먼저 생각하고 조국이 위기에 처하

거든 목숨을 바쳐야 한다”며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다.

그의 어머니는 편지에 “나라를 위한 일이니 목숨을 구걸하지 말고 대의를 위해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라며 수의까지 보낸다. 안중근 의사도 그렇지만 어머니의 결연한 태도가 모두의 눈시울을 뜨겁게 한다. 그는 참으로 의를 위해 목숨을 희생해 나라를 지켜낸 의인이다. 안중근 의사의 삶이 단지 독립투사로서만이 아닌 의를 추구하는 의인으로 숭고하게 다가오는 이유가 무엇일까? 허버트와 예일대에서 역사를 연구한 오드 베스타 교수는 최근 〈제국과 의로운 민족〉이라는 저서에서 중국이라는 거대제국 옆에 붙어있는 약소국가가 600년 동안 한 번도 점령당하지 않았던 저력이 무엇인지 밝혀낸다. 그것은 한국인이 의를 추구하는 민족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조선은 유교, 즉 성리학을 기초로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의를 숭상했다. 유교적인 의란 도덕심, 충

의로운 민족

성심, 원리에 대한 성실함을 뜻한다. 이 의로운 대외적인 침략을 당했을 때 적극적으로 발동되었다. 우리 민족은 외적과 싸우는 백성들의 군대를 ‘의병’이라 불렀고,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쳐들어온 왜군과의 싸움을 단순한 적과의 전쟁이 아닌 ‘의와 불의간의 투쟁’이라 본 것처럼 한국인은 의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이는 것 같다고 했다. 실제로 왜군이 조선을 침공했을 때 선조가 한성을 비우고 도망간 것을 보고 이미 전쟁은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때부터 우리 백성들은 자발적으로 의병을 조직해서 싸웠다. 왜군은 성을 빼앗기고 왕이 도망가면 전쟁이 끝나는데, 조선의 백성들은 왕이 없어도 나라를 위해 싸우니까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의에 대한 신념이 일본제국에 의해 35년 동안 식민지배를 당할 때 불의에 끝까지 항거하는 독립운동을 전개하게 했다. 8.15 해방 이후 곧바로 독립 국가의 기틀을 잡을 수 있게 했다.

조선의 엘리트들은 구한말 복음을 스스로 받아들여서 성경까지 번역했다. 초창기 조선의 복음화는 선교사들의 노력보다 우리 민족의 자발적 필요로 진행되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복음 수용력이 강했다. 의를 숭상하는 민족이니 노력의 대가로서가 아니라 값없이 주어지는 의를 놀라움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복음은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는 의에 갈급한 영혼들에게 최고의 은혜였기 때문이다. 결국 한민족은 의를 추구해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부여지는 은혜로 의로운 백성이 되었다. 일제 치하의 불의를 믿음으로 이겨냈고, 그 이후 공산정권의 불의함에도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었다.

앞으로 우리 민족은 어떤 불의한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외부적인 침략보다 강력한 세속적이고 반기독교적인 불의의 요소를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서빙고

O2. 793. 9686

토요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본당 2부 오전 11:00 본당 3부 오후 1:00 본당 4부 오후 3: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본당 2부 오전 9:00 본당, 비전홀 3부 오전 11:30 본당, 비전홀, 두란노홀 4부 오후 1:50 본당, 비전홀 5부 오후 4시 비전홀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본당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6:00 본당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20 비전홀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본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본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본당

목요열방예배

매주 목요일 오후 7:20 두란노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본당

금요심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본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오은규 목사
문의: 정성민 전도사(010-9496-7051)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김우용 대표(010-5395-2319)

장애인 공동체 누리스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홀
문의: 김중수 팀장(010-7303-1603)

아베스맘예배(사별자모임)

비대면모임: 매주 화 오후 7:30~8:30(Zoom)
대면모임: 매주 토 오전 11:00~오후 2:00
문의: 박윤애 팀장(010-2771-0073)

문화 미디어 증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를홀
문의: 전도본부(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를홀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 주일 오전 11:30 서빙고 한동홀
문의: 김현식 팀장(010-3597-7152)

일본어예배

매 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홀
문의: 김상호(010-9349-5631)

일본어예배 수요기도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선교관 302호

영어예배

매 주일 오후 4:00 경찬홀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 주일 13:40 경찬홀
문의: 02-3215-3707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서빙고(02-3215-3730)

몽골어 14:00 선교관 101호 / 러시아어 13:00 선교관 301호 / 네팔어 주일 14:00 선교관 202호, 매월 첫주 군포 쉼터 / 아랍어 주일 14:00 본관 B102 / 페르시아어 주일 11:00 Acts29 Hall

안산M센터(031-491-9650)

몽골어 주일 10:30 Joy 201 / 러시아어 주일 10:00 Onnuri Hall / 네팔어 주일 10:00 Peace 303 / 캄보디아어 주일 11:00 Peace 302 / 미얀마어 주일 10:30 Joy 202 / 필리핀, 파갈록어 주일 13:30 Onnuri Hall / 태국어 주일 14:00 Manna hall / 스리랑카어 주일 11:00 Peace 304 / 베트남어 주일 예배 11:00 Peace 301 / 중국어 청년 주일 12:30 Manna hall, 다문화 꿈땅 주일 11:00 Startree / 다문화 파워웨이브 주일 11:00 Peace 305 / 다문화 예꿈 주일 11:00, 14:00 Dream Kids / 다문화 대청 주일 12:00 Manna hall / 인도네시아어 주일 16:00 스타트리협동조합 / 우즈베크스탄어 주일 14:00 Peace 304 / 아랍어 11:00 Library / 열방예배 9:00, 11:00 4F Manna hall

김포M센터(010-5007-3616)

캄보디아어 주일 11:00 703호 / 러시아어 14:00 703호 / 미얀마어 14:00 706호 / 파워웨이브 14:00 705호 / 꿈땅 11:00 705호

화성M센터(070-8671-8091)

열방예배 주일 11:00 301호 / 네팔어 11:00 2센터 202호

평택M센터(031-651-1702)

열방예배 13:30 4층 OGA / 몽골어 주일 11:00 Love Hall / 페르시아어 15:00 Love Hall / 베트남어 13:30 4층 OGA 차세대 11:00 차세대예배실 / 열방청년예배 13:30 4층 OGA

남양주M센터(010-3937-3927)

열방예배(한국어) 주일 09:30 301호 / 힌디어 토요일 19:30 301호 / 네팔어 주일 15:00 301호 / 차세대 11:00 302호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오후 4시 / 신과 누리를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차세대사역본부 목요어머니기도회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10:30~12:00
장소: 온라인(Zoom)
문의: 서빙고(02-3215-3523)
양재(02-570-7553)

Acts29비전빌리지 서울 운행

시간: 매주 목요일 11:30~12:30
서빙고 출발 9:30, 양재 출발 10:10
비전빌리지(양지) 출발 15:00

마리아행전, 무릎선교기도 연합기도

모임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9:45~12:30
장소: 온라인(Zoom)
문의: 여성사역 02-3215-3227

한터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있으신 분들을 위한 공동체

일시: 매 주일 오전 10:00
장소: 서울 강서구 양천로 504 명문빌딩 7층
문의: 02-3463-9686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00 B102
문의: 홍숙의 권사(010-3003-5910)

남대문희망공동체 예배

쪽방촌 주민, 노숙인과 함께 드리는 예배
매주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용산구 후암로57길 9-3
문의: 010-8964-5275

자녀를 군에 보낸 어머니 기도모임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장소: 선교관 101호
문의: 군선교팀(02-3215-3214)

CMN 서울역노숙인 진로팀 모집

일시: 매달 셋째 주 목요일 오후 6:30~8:00
장소: 서울역 서부역교차로 사점출은친구들 예배당
문의: 윤상엽 팀장(010-9439-1180)

열린새신자예배 ‘특별한초대’ 스태프 모집

일시: 매주 일요일 오후 7시 서빙고 본당
모집: 환영 및 안내, 대고, 영상촬영 및 편집, SNS 관리, 예배 및 행사 기획, 코어어
문의: 02-3215-3177

온누리세라핌합창단 단원 모집

대상: 초1~중1(타캠퍼스, 타교인 지원 가능)
연습: 매주 토 1~4시(추후 주일 연습 재개)
장소: 서빙고 성가대실(지하 1층)
지휘: 최영은 성가사
문의: 010-8285-6435

두란노서원 채용 공고

업무: 재정부 세무회계 1명, 안드로이드/프론트/백엔드 개발자 각 1명
형태: 정규직(수습 및 사용기간 3개월), 주 5일 근무(주 35시간)
지역: 서울 서빙고동
지원: <http://www.duranno.com/recruit>

온비아 갈라디아서

일시: 3월 5일~4월 23일 매주 일 오후 7:30~10:00
강의: Zoom
회비: 155,000원
문의: 이창선(010-6221-1028)

*게시판 광고마감 목요일 오후 4시

양재

O2. 573. 9686

토요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사랑홀

일요주일예배(사랑홀, 드림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5:2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저녁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금요심야예배

매주 금 오후 10: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9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30, 하음조 기념홀
문의: 최성문 팀장(010-6481-5567)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30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음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Vine 중등1~고등3(비전홀 A 9:0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0분, 3부 오후 1시 5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교육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교육관 온유홀(A동 2층)
고등부: 교육관 기쁨홀(A동 3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예꿈2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꿈땅2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도곡 차세대 14:00 예배

예꿈3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꿈땅3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도곡교육관 주일 10:3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

도곡교육관 영어 차세대예배

Youth Service 11:00 도곡1교육관 기쁨홀
Kidzone 10:30 도곡2교육관 기쁨홀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4:00 예배(청년부)

갈렙청년부 도곡1관 기쁨홀

사랑부 예배

주일 오전 9:00(발달장애인 6세~18세), 11:20(발달장애인 대학청년) 비전홀B
문의: 김병철 목사(010-9289-3927)

프랑스어 예배

설교: Gerard Tynevez
일시: 주일 오후 2:00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8483-6210 *통역 지원

스페인어예배

설교: 김종균 목사
일시: 주일 오후 2:00 도곡교육관 온유홀
문의: 010-4053-2179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공동체
매 주일 14:00 JDS홀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 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02-570-7277

양재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러빙랜드
문의: 김은지 권사(010-3285-1726)

온누리세라핌합창단 단원 모집

지휘: 최영은 성가사
모집: 초 1~중 1
연습: 매주 토, 일요일 오후 2~4시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성가대
문의: 010-9927-4224

CMN 시온팀 동역자 모집

모집: 치료 외
사역: 여름 해외 아웃리치 및 매월 넷째 주일 안산M센터 의료사역
문의: 이백권 팀장(010-3388-5331)

CMN 토보팀 의료진 모집

일시: 매월 두 번째 주일 오후
장소: 김포M센터(이주민, 난민 의료지원)
분야: 치료의사, 치위생사
문의: 윤상엽 팀장(010-9439-1180)

한국어선교학교 개강

대상: 국내 이주민들에게 한국어를 교육하기 원하시는 분
일시: 3월 4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7시(10주간)
장소: 양재온누리교회 두란노홀, 온라인 줌
신청: 아이케어
문의: 장성수 팀장(010-6652-3596)

부천 O32. 322. 9686 토요주일예배 9: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 2:00 / 4부(대학청년) 4:00 / 5부 7: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6:00 본당 주일 차세대예배 영아1부 9:00, 영아2부 11:30 / 유치1부 9:00, 유치2부 11:30 / 유년1부 9:00, 유년2부 11:30 / 초등1부 9:00 / 초등2부 11:30 / 소년1부 9:00 / 소년2부 11:30 / PW1부 9:00 / 중등부 11:30 / 고등부 11:30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한사랑예배(탈북민) 주일 오후 2:00 꿈아이홀 사랑부예배(장애인) 주일 오전 11:30 꿈아이홀 어린이영어예배(JEM) 오후 2:00 예꿈홀 중국어예배 오후 2:00 두란노홀	수원 O31.895.6500 토요주일예배 토요패밀리워십, 예꿈놀이학교, 사이닝키즈, 어와나 10:00 일요주일예배 1부 7:00 / 2부 9:00 / 3부 11:30 / 찬양예배 14:00 대학청년(주일) 오후 2시 비전홀 새벽예배 월~금 오전 5:5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오후 7:30 주일 차세대예배 영아부 9:00, 11:30 드림홀 / 유아부 9:00, 11:30 조이홀 / 유치부 9:00, 11:30 소망홀 / 유년부 9:00, 11:30 믿음홀 / 초등부 9:00, 11:30 대광빌딩 4층 / 소년부 9:00, 11:30 사랑홀 / 중등부 9:00, 11:30 비전홀 / 고등부 9:00 경찬홀 영어예배 차세대 11:30 경찬홀	대전 O42.825.3642 토요주일예배 10:00 본당, 한누리(탈북민) 11:00 303호 일요주일예배 1부 7:10 / 2부 9:00 / 3부 11:30 / 4부 젊은이예배 14:30 / 5부 대학부예배 14:30 누리홀 / 6부 19:00 / 세중교육관 본당 1부 9:00 / 2부 11:30 주중예배 새벽예배 월~금 5:20 본당 / 6:00 세중교육관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10:00 본당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19:30 본당 주일 차세대예배 예꿈1부 9:00 302호 / 세중교육관예꿈 11:30 407호 / 영아부 11:30 301호 / 유치부 11:30 302호 / 꿈땅1부 9:00 304호 / 세중교육관꿈땅 11:30 402호 / 유년부 11:30 304호 / 초등부 11:30 303호 / 소년부 11:30 비전홀 / 중등부 11:30 누리홀 / 고등부 9:00 누리홀 / 세중교육관 파워웨이브 9:00 402호	남양주 O31.565.9686 토요주일예배 10:30 3층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대학청년) 14:00 / 4부(저녁) 19:00 / 행복한 하나예배(탈북민) 11:00 온유홀 / 다문화예배 15:30 꿈땅홀 외국어예배 힌디어예배 토요일 19:00 광릉내 M센터 301호 네팔어예배 토요일 19:00 광릉내 M센터 304호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0 3층 본당 수요여성예배 오전 10:30 3층 본당 수요부흥예배 오후 7:30 3층 본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2층 예꿈홀 / 유치부 9:00 2층 예꿈홀 / 유년부 9:00 2층 꿈땅홀 / 초등부 11:30 2층 꿈땅홀 / Awana 토요일 10:00 2층 꿈땅홀 / 중등부 오전 11:30 기쁨홀 / 고등부 9:00 기쁨홀
평택 O31.651.9680 토요주일예배 10:30 2층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본당 / 2부 11:30 본당 / 3부(영어예배) 14:10 대학청년(주일) 14:30 3층 301호 주중예배 및 모임 수요기도모임 매주 수 오후 1:30 3층 파워웨이브실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10:30 본당 수요저녁경배와찬양예배 매주 수 오후 7:30 본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4층 영아부 예배실 / 유치부 11:30 3층 예꿈 예배실 / 초등부 9:00 3층 예꿈 예배실 / 유년부 11:30 3층 예꿈 예배실 / 파워웨이브 11:30 3층 파워웨이브 예배실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0 2층 본당	인천 O32.437.9686 토요주일예배 9: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7:00 / 2부 9:00 / 3부 11:30 / 4부 14:00 대학청년 16:00 본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9:00, 11:30 사이닝홀 / 유치부 9:00, 11:30 꿈아이홀 / 유년부 9:00, 11:30 드림홀 / 초등부 9:00, 11:30 기쁨홀 / 파워웨이브 9:00, 11:30 소망홀 장애인에배 및 국제예배 사랑부 11:20 영상예배 / 다문화 모자이크 예배 14:00 소망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2층 본당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0 2층 본당	강동 O2.475.9686 토요주일예배 11: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프라미스) 14:00 / 3부(프라미스U) 14:00 사랑홀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기쁨홀 / 유치부 11:30 두란노홀 / 유년부 11:30 사랑홀 / 초등부 11:30 드림홀 / 중고등부 9:30 사랑홀 장애인에배 사랑부 9:00, 11:30 경찬홀 주중예배 수요오전여성예배 10:30 본당 수요저녁예배 19:30 본당 금요기도회 20:00 새벽예배 오전 6:30 본당	양지 O31.331.8171 토요주일예배 9: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Y.대학청년) 14:30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드림세드홀 / 유아부 11:30 무어홀 / 유치부 11:30 위더스홀 / 유년부 11:30 아펜젤러홀 / 초등부 11:30 킬보른홀 / 중등부 11:30 박모세홀 / 고등부 11:30 박모세홀 주일기도모임 예배중보기도모임 주일 10:30 캠벨홀 주중예배 수요오전예배 10:30 박모세홀 or 아펜젤러홀 금요성령집회 21:00 시안홀 새벽예배 월~금 6:00시안홀

창조질서 회복을 위한 퐁당 추천 콘텐츠



창세기의 비밀을 풀다



창세기에 담긴 비밀을
과학적 증거로 풀어내는
창조과학 다큐멘터리



영화 <믿음의 선택>



진화론을 가르치는
생물학 교수의 영향으로
신앙에서 멀어지는
딸을 위한 아버지의 선택



영화 <더 바이블 브릭무비>



천지창조부터 출애굽기까지
레고로 만나는 위대한
성서이야기



'퐁당' 시청방법



스마트폰으로 시청하기
구글플레이, 앱스토어에서
'퐁당' 검색 후 다운로드



스마트TV로 시청하기
LG, 삼성 스토어에서
'퐁당' 검색 후 설치



PC로 시청하기
www.fondant.kr

CGNTV

정기후원 [하나은행 573-910002-67804]
ARS 060-705-0000 문의 02-796-2243